

회복과 성장, 마냥 없는 행복한 미래

안전한 대한민국,
교정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vol.590_2025. July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깨달음, 혹은 깨우침의 서사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성중독 치료의 Key Man,
우리는 법무부 교정교육 전문 강사다
최우진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위

12 우리는 한마음

행동으로 말하는 교정人,
공동체의 따뜻한 실천가
인터뷰 | 배정배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광주지회 지회장

교정 이야기

16 교정 기관

배움이 삶을 일으키는, 그 훈련의 자리
사회 향한 의지와 열망이 드나드는 곳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2 교정과 사람들

직업훈련으로 다시 서는 삶,
'삶의 재건' 위한 밀착 동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

교정 아카이브

26 교정 포커스

미국 콜로라도주 방문기
최규환 교정본부 복지와 교위

42 교정 논문

규문주의적 구조의 징벌제도 개선방안 연구
캐나다 수형자 징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66 교정 리포트

성폭력사범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하)
김진선 인하대학교 인문학술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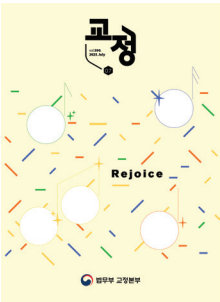
교정 뉴스

84 교정본부 NEWS

86 교정기관 NEWS

95 모범 공무원

96 독자마당



COVER STORY

기쁨은 때때로 교묘한 시간 속에서 태어납니다. 교정의 일상 또한 그러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누군가의 변화와 회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이 벅차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마주하는 의미 있는 기쁨이며,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쌓여 오늘의 우리를 지탱하고, 내일의 교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이흥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발행일 2025년 7월 10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인스타그램 [instagram/korea_correctional_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달음, 혹은 깨우침의 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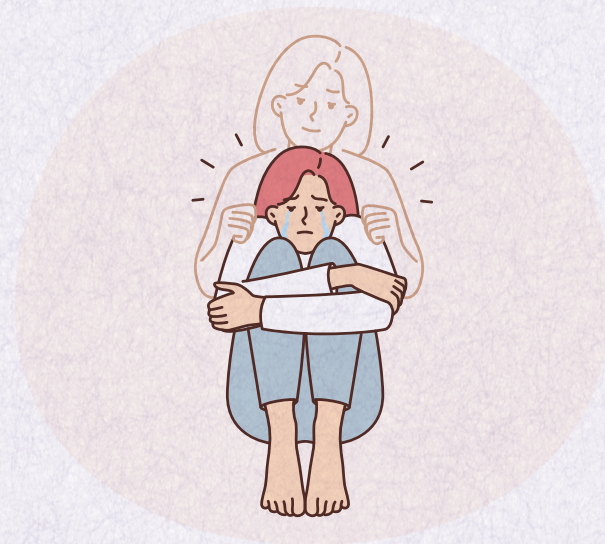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행형시설이 사회 일반의 환경에 비해 전혀 독특한 장소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들은 그 환경에 그다지 개의치 않고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그야말로 긴 세월 함께하여 몸에 배고 익숙해진 제 몫의 루틴 탓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듯 반복되어 관행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린 것들로 사고와 생각과 시계와 관점의 맥락들이 고착되고 만다면, 자칫 우리의 직무 행태란 것은 높은 담만큼이나 갈라치기 된, 아주 배타적인 모양새로 자리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소와 사물들에 갇든, 사소하나 중요한 섭리들을 행여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하기도 쉽겠지요. 익숙해진 방식일수록 가끔씩 재고와 혁신의 시선으로 되짚어 보는 균형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너무 가까이 있어 선뜻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우리가 고쳐가야 하고 또 고쳐온 행형의 주요한 질문과 대답들을 돌아 보고자 합니다.

1977년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배부된 계호근무준칙을 읽다가 재소자를 수용자(收容者)로 잘못 호칭하고 있음을 발견, 깜짝 놀라 동기생들에게 그 표기의 잘못을 언급하고는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수용(收容)이란 어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나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는 것을 의미함이 사전적 정의이니 수용자란 곧 수용하는 사람, 즉 교도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엉뚱하게 재소자의 호칭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소자라면 웅당 피수용자(被收容者)라 불러야지, 이를 수용자로 호칭한다면 마치 피고인



(피고소인)을 고소인이라 부르는 잘못과 진배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본시 피(被)란 한자는 서술성 명사 앞에 붙어 ‘그 일을 당함’의 뜻을 더하는 말이니 재소자는 피수용자로 불리어져야 옳은 것입니다. 당시의 행형법 등 행형관계 법령 어디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던 수용자란 호칭이 어떤 경위로 유독 계호근무준칙에서 오용되기에 이른 것인지 다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나의 문제 제기에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옥편을 찾아보는 등 쉽게 동의하지 않던 내부반의 동기생들도 생각의 일치에 이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마침내 긍정의 손바닥을 내려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교정 경험한 한 수 위인 우리가 미처 못 본 것을 찾아내는 것을 보니, 순수공채인 자네가 교정간부가 될 수 있었던 연유를 이제야 알겠다”하고 말하여 모두들 한바탕 깔깔거리며 웃어대기도 했지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갑자기 행형 용어를 순화한다는 구실로 행형법에 이르기까지 재소자 대신 수용자란 어휘가 잘못 표기되기에 이르는 사고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수용자란 말이 이미 재소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고유명사화되었다는 해괴한 논거를 핑계로 항변은 묵살되고 말았지요. 2005년 대구지방교정청장 재임 시 한일 교정직원무도대회 단장으로 일본에 가서 동경구치소를 참관할 때였습니다. 구치소 측이 수용현황을 설명하며 수용인원을 ‘피수용자’ 00명이라고 또렷이 호칭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한자로 표기된 현황판의 자구까지 짚어오니, 같은 한자어 문화권을 공유하면서도 대비되는 우리 행형의 미몽과 무지에 팬스레 내가 대신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부장이 되었을 때 이 수용자란 용어의 오용을 고쳐보고자 노력했으나, 이미 각종 행형관련 법령과 규칙은 물론 일부 행형학 교과서에까지 남용되고 있어 업무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부하된 업무의 처리 및 짧은 재임기간 등의 여건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를 바라보듯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숙제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점 부끄럽기 짝이 없으나,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할 과제를 상기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91년 M교도소 작업과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양재 공장을 순시하다가 근무 중인 직원이 기동모를 쓰고 있다가 얼른 벗고는 정모를 집어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동모의 크기가 맞지 않아 수선케 하고 있는 듯 보여졌습니다. 근무복에 기동모를 쓴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보였으나, 그러나 찰나에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마음을 달구어 왔습니다. 기동모를 근무복 하의의 색상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하절기 머리를 압박하고 땀에 젖게 하는 무거운 정모 대신 착용토록 한다면, 직무의 효율성 촉진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상층부의 습관적인 외곬 이념이나 편견의 굴레를 불식시키기가 쉬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생각난 김에 빠르게 본부에 건의했었습니다. ‘근무모’라고 이름까지 붙였지요. 예상과 달리 본부에서는 빠르게 건의가 수렴되었고, 그리하여 직원들은 근무 시 머리를 짓누르던 정모의 무거움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도관들이 정모를 벗고 날렵한 외관의 근무모를 쓰자, 경찰관 등 다른 모든 제복공무원들이 재빨리 교도관을 흉내 내어 모두들 무거운 정모를 벗어 던지기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복제에 있어 늘상 경찰관의 것을 뒤따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 근무모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가 선도하였으니, 자긍심의 카운터펀치 하나를 날린 듯 차오르는 고양감으로 마음이 흡족하기만 했습니다.

2004년 S구치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이 이른바 열린 교정을 표방하며 행형에 내재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법령과 제도상의 구습 탈피는 물론 근무 행태의 새로운 각성과 전향적인 인식을 촉구해 오고 있던 터라,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져 온 까닭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매김하여, 재소자들의 입장과 정의를 간단히 비웃고 방치해 두는 행각이 잔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찬찬히들 곱씹으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직원들의 구두였습니다. 재소자들의 땀 흘림을 빌린,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이는 구두였습니다. 7·80년대에는, 오전에 포마드 기름에 깨끗하게 드라이한 머리를 하고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가는 자라면, 열에 아홉은 교도관임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농담을 나누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직원들의 이발이야 어차피 재소자들에게 이발기능훈련을 시행하는 터이니 실습의 기회를 배려함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으되, 구두닦이를 두고서는 근로정신 함양이라는 억지스런 핑계는 물론 그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직원들이 직접 구두를 닦기로 결의하였고, 익숙해질 때까지 교정 위원의 지원을 받아 500만 원 상당의 구두닦이 기계를 구입, 1회 100원으로 사용 가능하게 조작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이후 타 교정 시설들이 연이어 이를 따르기에 이르렀고, 중국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재소자의 구두닦이는 자취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부장으로 재직 시에, 일선의 애로사항들을 직접 전달받아 재소자들의 수용기강 확립을 위한 CRPT 창립, 인권신장을 위한 항문 검사기계 비치, 재소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불식을 위한 고가 운동화 차입금지 등을 비롯 많은 개혁적 조치들이 강구·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미처 모른 채 다만 과거의 시간을 배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틈틈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혁신은 늘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들에서 낯설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역량입니다. 우리의 사유 과정과 경험적 발견들을 통해 모호함이 없이 새롭고 명료한 하나의 답을 찾아냈을 때의 짜릿함이야말로 그 무엇에도 건줄 수 없이 빛나는 깨달음이자 깨우침일 것입니다.

성중독 치료의 Key Man, — 우리는 법무부 교정교육 전문 강사다



최우진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위

교도소의 또 다른 이름은 학교라 불린다. 흔히 교도소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의 표현이다. 그들은 주변의 냉소적 시선을 피하려고 ‘학교에 다녀왔다’고 에둘러 말한다. 감방, 감옥, 교도소 등 자신이 생활했던 공간을 미화하는 것이고, 잠시나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학교의 은유적 표현한다. 되새겨보면 ‘학교’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다.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학교뿐이겠는가! 학교의 교정(校庭)과 교정시설의 교정(矯正)은 한자어만 다를 뿐 발음은 같다. 통상 학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도소 역시 대상만 다를 뿐 범죄자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통해 재사회시키는 장소이다.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는 사람을 교정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끄는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교도소이다. 과거의 교도소는 단순히 격리와 구금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범죄자를 구금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료정책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교도소는 과거 형무소라고 불리었고, 교도관도 형무관이라고 불렸을 때가 있었다. 형무소의 ‘형무’는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교도소의 ‘교도’는 바로잡아 이끄는 것을 말한다. 글귀에서 보여주듯 변경된 명칭 속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죄지은 사람을 처벌해 낙인을 주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격언을 더 가깝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범죄자가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하여 선량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치료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24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수용자 38,045명 중 경제사범을 통틀은 사기·횡령 범죄자가 9,338(24.5%)명이었으나, 단일 죄명으로는 성폭력 범죄가 5,362(15.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성범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이고, 또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연장되어 잊혀질 뻔한 범죄들의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재량을 남용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범행 대상이나 방법에 따라 전반적으로 이수명령시간도 높게 부과한다. 그 결과 성범죄자 치료는 대부분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범죄는 중독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률이 높다. 통상 일회성 범행은 수형생활을 피할 수도 있으나 성범죄로 수형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동종의 성범죄가 많다. 역으로 해석하면, 법적인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적 호기심과 쾌락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범죄를 중독성이 높게 평가하고 치료를 통해서만 교정해 나갈 수 있다. 치료과정도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고, 가장 힘든 치료 대상이 성범죄이다. 대부분 성범죄자는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범행 책임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그 책임을 외부의 탓으로 돌려 반성을 피한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형사사법 절차인 경찰, 검찰, 법원까지 억울함을 호소해 나간다. 더욱이 무죄를 주장해야 하기에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다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높은 형량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호소는 외면당하고 피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다며 판결에 불신을 갖고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상고심도 이를 수용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교정시설의 치료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치료과정 시작부터 적대감과 경계심이 높아 라포형성이 어렵다. 통상 치료과정은 집단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라포형성이 안 되면 자기 개방을 이끌 수 없어 사건을 직면시킬 수 없다.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다. 결국 험난한 파도를 이겨본 경험 많은 선장만이

성범죄는 중독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률이 높다. 통상 일회성 범행은 수형생활을 피할 수도 있으나 성범죄로 수형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동종의 성범죄가 많다. 역으로 해석하면, 법적인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적 호기심과 쾌락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범죄를 중독성이 높게 평가하고 치료를 통해서만 교정해 나갈 수 있다.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는 것처럼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숙련된 치료자라면 치료 초기에는 실체적 진실을 추궁하기보다 이들의 억울한 사정에 한 번쯤 귀를 기울인다. 즉, 조건 없는 수용을 보여준다.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치심 높은 성범죄를 부인하는 과정에 가족은 물론 누구도 자신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서운한 감정부터 달래주려는 노련함이 있어야 한다. 불만이 가득하여 성토하는 사람들에게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면 논쟁의 장이 되어 결국 배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에 좌초된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사법기관에 대한 높은 불만부터 어루만지는 치료자의 공감적 수용은 그들에게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경계심을 해제할 유일한 열쇠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한배에 탄 동승자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사법행정의 연장선인 교도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면 마땅히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것처럼 의존하게 된다. 곧이어 꼭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시나브로 열린다. 목적지가 같다는 공감을 얻으면 태풍 같은 잔소리를 들어도 순풍에 돛 단 듯 이끌려 온다.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주변의 경계가 심하고, 한편 저항이 심하다는 것은 두 번 상처받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의 발현이다. 그러나 경계와 저항이 큰 사람일수록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조심스럽게 한 번 열린 마음은 반대로 쉽게 닫히기 힘들다. 믿음이 생긴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항이 심한 대상자일수록 초반에 신중하게 접근하면, 그러한 노력은 곧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유능한 치료자는 내담자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비단 한 사람이 아닌 사회로부터 외면당해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린 대부분 수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상처받은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 주며 자기 위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쫄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데에는 따뜻한 온기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경험 많은 치료자일수록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 굳게 얼어붙은 마음이 살얼음 녹듯 녹아내리면 비로소 치료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중독 치료는 이러한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 기술이다. 감히 외부전문 강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자 교정교육 전문 강사만의 축적된 노하우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도관은 범죄자들과 24시간 가족처럼 함께 지내면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데 누구보다도 탁월하다. 수형생활 중 가족들보다도 깊은 감정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감히 성인이 된 그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직면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교도관만이 가능한 일이다. 감추고 싶은 감정을 찾아내어 직면시키고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교정교육 전문 강사다.

치료과정에서 만능열쇠 역할을 하는 ‘공감적 수용’은 단면적으로는 범죄행위를 공감해 주는 것으로 오해되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치료자로부터 공감받은 따뜻한 경험은 결국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시키는데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치료법이 성중독 치료 강사들의 특별한 노하우이고, 만능열쇠를 움켜쥔 교정교육 전문 강사들의 숨은 노력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

행동으로 말하는 교정人, 공동체의 따뜻한 실천가

배정배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광주지회 지회장

INTERVIEW

개인의 삶은 단조롭되, 사회적 삶은 다채롭다. 불과 몇 글자의 이름과 함께 시작된 인생은 필연적으로 경계를 넓히면서 연대되고 확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연유다. 그렇게 '나'는 시간을 따라 또 다른 여러 이름을 얻으며 삶의 색채를 더해간다. 배정배 지회장(대한민국교정동우회 광주지회, 이하 광주지회)은 삶의 이러한 이치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체현하고 있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자격보다 앞선 책임, 실천보다 깊은 애정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할 수 있다면 그 무게는 참으로 묵직하다. 누군가의 곁에서 불리는 이름, 어떤 역할로 호명되는 순간의 호칭 모두가 삶의 기록이며 관계의 지도인 셈이다.

교정시설 인성지도 강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 센터 이사, 봉사회 회장, 건강 매니저 등 많은 이름을 가진 배 지회장은 뿌리에서 줄기를 타고 잎맥으로 스며드는 양분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공동체 곳곳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충간소음관리사'·'약용식물자원관리사'·'요양보호사'·'병원동행매니저'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데다, 그중 하나의 취득일이 지난 5월이라는 것. 소용(所用)이 생기면 그는 언제라도 거침없이 움직일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격증까지 손에 넣을 터였다. 스마트폰 화면에 빼곡히 입력된 일정표, 틈틈이 걸려 오는 안부 전화는 배 지회장이 얼마나 짜임새 있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그의 활동 반경은 넓었으며, 삶과 사람에 대한 책임과 애정은 깊었다.

무등산 품고 실천하는 교정 공동체

광주지회는 교정동우회의 지역 조직 가운데서도 교정 전문성과 지역 밀착형 공공 활동을 균형 있게 실현하고 있는 단체다. 기본적으로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교정 경험의 공유를 통해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공익 실현을 주요 목표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는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닌, 오랜 교정 현장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지속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환경 봉사 중심의 지역사회 내 실천이다. 광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무등산을 중심에 둔 활동은 광주지회만의 차별화된 봉사 철학을 보여준다. 무등산보호단체에서 상근 중인 임원 3인을 비롯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환경대학 운영위원 등 다수의 회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광주지회의 지역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배 지회장은 "무등산은 광주의 상징이다"라고 설명한 뒤, "광주지회는 지역 상징성과의 연대 가운데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외부와도 소통하는 열린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광주지회의 존재 의미는 교정이라는 전문성과 자원봉사의 공공성을 잇는,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적 공동체로서 가능성을 확장해 가는 데 있다는 의미다.

올해만 해도 지난 3월 20일경 무등산 자락에 있는 '너와나목장' 부지에 식수 200여 주를 심었다. 이어 25일에는 교정동우봉사단 창립총회 겸,

지역 내 다른 20개 단체와 협력해 광주천 정화 활동, 흙공 던지기,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지난 5월 말 광주광역시 옛 교도소 자리에 위치한 솔로몬파크 및 국립화순휴양림에서 볼런투어¹⁾를 실시했고, 지난 6월에는 ‘환경의 날’을 맞아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6개 기관과 ESG 실천 캠페인 및 대자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지회는 회원 간 유대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격월로 열리는 회의는 각자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며, 이는 종종 트레킹과 야외 봉사 등의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배 지회장은 광주지회의 이러한 시스템이 단체 내부의 결속력은 물론, 개인적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다.

현장 경험하며 마음의 직관 길러

배 지회장이 교정人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1974년 6월 10일, 김해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였다. 3년 후 광주교도소로 자리를 옮겨 무려 29년간, 총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정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용자 교정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묵묵히 사명을 다해왔다.

“1973년 군 제대를 하고, 금호타이어의 전신인 당시 삼양타이어에 입사했어요. 건강했고 나약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힘들더군요. 주야 3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노동 현장의 치열함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더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하지만 군대 3년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던 그 3개월이, 훗날 제겐 큰 자산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배 지회장은 교도관이 하는 일을 힘들게 느낄 리 없었다. 비변을 얻는 데 변수가 많고 밤샘 후 낮까지 연이은 근무도 다반사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3개월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마음의 감각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이는 훗날 수용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눈빛과 말투, 침묵 사이에 흐르는 공기만으로도 수용자의 감정이 보이는 듯했어요. 기본적으로 서류상의 정보가 있었고, 그들의 표정과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했을 거예요. 이혼 위기에 있거나 경제적 곤란을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수용자와 이야기를 길게 나누곤 했죠. 그런데 커피를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경청한 것이 어느새 상담력(力)이 되더군요. 덕분에 수용자 가족은 물론, 오래전 출소한 수용자에게서도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과 진지함의 교정 인생, 그 여정은 계속

교정의 세계에 있었지만 배 지회장은 그저 사람을 이해하고자 했고, 변화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싶었다고 한다. 그랬기에 명절이면 수용자들에게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과일이나 생필품을 건넸고,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담당 수용자의 이야기를 마주 앉아 들곤 했다. 특히 그는 무기수들이 많은 환경에서도 한결같은 태도로 임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 역시 그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아보고는 싸움의 조짐이 생기면 저들끼리 진화에 나섰다고 한다.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수많은 표창과 훈장으로 증명된다. 근무 중 법무부 장관 표창을 두 차례 받았고, 2003년에는 ‘교정대상’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퇴임 당시에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으며 수십 년의 헌신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2005년 12월 명예퇴임한 배 지회장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정동우회에 가입했다. 이후 이사 4년, 부회장 4년, 회장 3년을 역임하며 내실을 다지고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태왔다고 한다. 오랜 교정 경험이 단지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대 속에

서 의미 있게 확장되길 바란다는 배 지회장은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자 했다. “인생은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묵묵히 걸어가세요. 조직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보고, 개인적 가치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조직과 교정의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배 지회장에게 가장 깊이 새겨진 이름은 어쩌면 수용자들의 ‘따뜻한 조력자’, 교정人으로서의 ‘행동으로 말하는 한결같은 실천가’인지도 모른다.



1)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의 합성어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관광도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배움이 삶을 일으키는, 그 훈련의 자리 사회 향한 의지와 열망이 드나드는 곳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09년, 대한민국 교정행정에 하나의 이정표가 새겨졌다. 전국 교정 기관 가운데 최초의 전문 직업훈련교도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문을 연 것. 교도소의 '직업훈련 전담'은 2004년 말 청송보호감호소가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명칭을 바꾸며 이미 시작됐지만, '직업훈련 중심 교정시설'로서의 체계와 철학을 본격적으로 갖춘 첫 사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라는 것이 중론이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기술을 배우는 일, 다시 삶을 선택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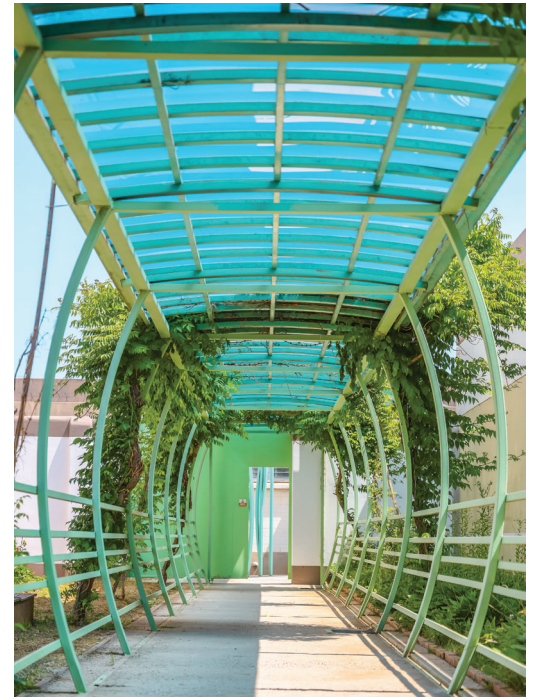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의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방향은 누군가의 안내와 가르침과 동행이 있을 때 선명해진다. 지난 2009년 8월 13일 개청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교정 기관이다.

2008년 6월 준공 이후 1년간의 준비를 거쳐 출범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직업훈련 특화 교도소다.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용자, 형이 확정된 기결 수용자, 그리고 전국 각 교정시설에서 선발된 직업훈련수용자들을 함께 수용·관리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 훈련 및 교화를 진행한다.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기술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품고 있는 가장 분명한 목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수도권에 자리 잡은 지리적 이

점과 함께, 현대적인 건축설계와 최신 시설을 갖춘 교정 기관으로 개청 초기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개방감 있는 설계, 효율적인 공간 배치, 첨단 보안 시스템은 물론, 직업훈련에 특화된 다양한 실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배움의 현장'으로서의 교도소라고 불리기에 모자람이 없었다는 것.

물론 16년이 지난 만큼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꼭 그만큼 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철학은 한층 확고해졌고, 운영 방침과 전략 역시 고도화됐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르침과 배움 사이 존재하는 무수한 요소들 또한 더 정교하고 단단해졌으리라 짐작된다. 한 기관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은 해를 거듭하며 더욱 분명해지거니와, 그 흐름은 수용자와 교사 모두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훈련 수용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은 더 깊어지고, 기술을 전수하는 교사들의 실력과 진심 어린 열정 역시 한층 더 정밀해지지 않았을까.



교정과 재할 있는 기술 교육의 현장

수용자에게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삶의 가능성을 되살리는 일과 같다. 이에 교정본부는 일찍이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교정 기관의 직업훈련은 출소를 앞둔 수용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정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교정본부는 1969년부터 전국 교정 기관 내에 공공 직업훈련소를 설치, 용접·전기·미용·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는 건설, 정보통신, 컴퓨터응용가공 등 14개 직종 분야에서 24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실효성과 전

문성을 모두 갖춘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¹⁾

하지만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화했고, 수용자의 적성과 수요도 그에 따라 한층 더 다양해진 게 사실이다. 교정본부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해답으로 2009년 수도권에 최첨단 훈련시설과 설비를 갖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개청했다. 이는 직업훈련 특화형 교정 기관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단순한 교도소가 아닌, '훈련 중심 교정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이에 기능인 양성을 위한 체계적 커리큘럼과 함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능경기대회 참가, 산업체와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 입체적인 재활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1) 법무부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04/subview.do>).





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닌, 기술과 사람을 연결하고, 재범률을 낮추며, 교정의 목적을 보다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으로 구현한 '확장된 교정 철학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성장과 회복 위한 통합 시스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직업훈련 특화형 교정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 현재 총무과·보안과·출정과·분류심사과·직업훈련과·사회복귀과·복지과·의료과 등 8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용접, 목공, 자동차 정비, 컴퓨터응용선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 중심 교육과정 마련돼 있어 수용자들은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일반 교정시설과 비교해 직

업훈련 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다. 전체 수용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의 종류와 담당 교사 인원 또한 타 교도소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단순히 형 집행을 위한 공간이 아닌, '기술 훈련장'이자 '사회복귀 준비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수용자 개개인의 성향과 역량에 맞춘 맞춤형 교육은 반복 실습을 통해 성취감을 쌓게 하며, 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다시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 훈련과정을 통해 서서히 자리 잡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각,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뿌듯한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회복귀에 대한 동기와 의지로 이어진다. 이처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훈련 시스템은 단지 노동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심리적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배려의 교정행정, 국민행복을 향한 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배려하는 적극행정, 배가되는 국민행복' 실천에도 앞장선다.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 지원뿐만 아니라, 수용생활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기관 운영의 또 다른 축인 셈이다.

'회복 가능한 존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이러한 방향성은 교육과 교화, 심리치유와 상담, 복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실천 속에서 꾸준히 구현되고 있다. 이는 "형벌은 단죄가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수용자 개개인의 사연과 가능성을 품고 이를 현실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교정의 자세이기도 하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지향하는 직업훈련은 교도소 내부에 머무르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민간 자격증 과정과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기업과의 연계 훈련 등으로 '교도소 안에서 사회의 문턱을 경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수용자의 변화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이 바래지 않을 믿음은 수용자의 내일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서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직업훈련으로 다시 사는 삶, '삶의 재건' 위한 밀착 동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

'직업'이란 생계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립에 대한 의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 그리고 내일을 향한 꿈이 스며들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밀도와 절실함이 평균 이상이어서, 단순한 '기술 습득'이라기 보다는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에 가깝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는 수용자들과 밀착 동행하며, 바로 그 전환점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사회'를 준비하는 이곳, 교정의 진짜 얼굴

교정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형벌이나 통제를 넘어선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수용자가 사회라는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어가도록 돕는 일, 즉 '삶의 재건'이 자리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는 바로 그 지점에 집중하며, 기능 습득을 넘어 인격적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교육을 통해 출소 후 지속 가능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의 운영 철학은 명확하다.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인성교육과 가치관 재정립을 통해 수용자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고,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철학 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고도화된 산업기사 향상훈련과 다기능 기능사 양성훈련, 그리고 맞춤형 민간 자격증 과정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직업훈련과에서는 7개 향상훈련과정(2년)과 19개 양성훈련과정(1년 또는 6개월)이 운영되고 있다. 훈련 분야는 전기, 용접, 자동차 정비, 정보통신, 제과제빵, 바리스타, 웹툰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하며,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2026년에는 향상훈련과정을 9개로 확대해, 더 폭넓은 교육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특강과 실무 교육, 출소 후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지원 체계도 마련돼 있다. 수용자가 훈련을 마친 뒤 사회로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 끈기 있는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것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만이 지닌 차별화된 강점이다.

현장 밀착형 교육 설계와 운영 체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산업기사 향상훈련'과 '기능사 양성훈련'으로 나누어 운영 중인 과정은 수용자의 적성·학력·흥미를 충분히 고려한 결과다.

우선 2년 과정의 산업기사 향상훈련은 한식조리, 건축도장, 용접, 자동차정비, 소방설비, 정보통신 등 총 7개 과정이 운영된다. 이 과정은 2,800시간 동안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담아낸다. 격월로 3~5개 과목에 대한 이론시험, 과제평가, 실무 수행평가 등 자체평가를 통해 수강생의 역량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있다.

1년 및 6개월 단위로 구성된 기능사 양성훈련은 총 18개 과정이다. 컴퓨터



응용선반, 자동차도장, LED응용전기, 실내건축, 웹툰콘텐츠, 제과·제빵, 중식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실질적인 직업 능력 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진다. 총 1,200시간(1년) 또는 약 600시간(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과정 역시 NCS 기반으로, 실무 수행평가와 과제 중심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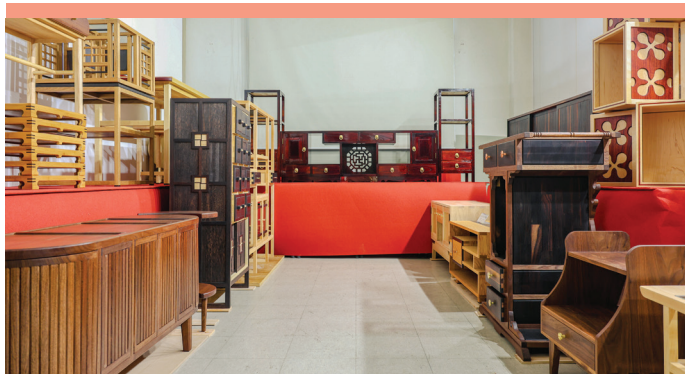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시대 흐름에 맞춘 훈련과정도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냉난방기 세척관리사 등 민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청소 실용직업훈련, 웹툰크리에이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웹툰 콘텐츠 과정, 전기차 진단사 양성을 위한 EV진단 과정 등이다. 이는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 전문성과 팀워크의 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의 교육은 그저 커리큘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 직업훈련과는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과장을 포함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 교도관 6명, 각종 직업훈련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직업훈련교사 24명이 함께한다.

훈련교사들은 건축, 기계공학, 식품영양학,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생활예술 디자인, 자동차공학, 산업공학 등 실무 중심 전공을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훈련생들을 지도한다. 대부분 5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교육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로써 실전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훈련이 가능해진다.

업무는 행정과 현장훈련으로 구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은 주로 교정직 교도관들이 맡아 훈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하며, 현장



에서는 각 직업훈련교사가 자신의 공과에서 실습과 교육을 전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협업으로 풀어나가는 팀워크가 있기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는 견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더욱 안정화해 가고 있다.

변화의 순간을 함께 만드는 일

수용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바탕에는 “스스로 다시 서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자격증을 따고, 실습을 마치며 사회에 나설 준비를 갖추는 과정 가운데 절실하고 진지해져, 수용자들은 비로소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훈련을 통해 삶의 태도마저 바뀌는 순간도 있다. 예컨대 제과·바리스타 공과 훈련생들이 실습으로 만든 빵을 인근 지역 아동센터 등에 기부하는 ‘쾌찬차’ 프로그램은 단지 나눔을 넘어서, 수용자 스스로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깨운다. ‘목재’라는 원료를 빗어 근사한 가구를 만들어 냈을 때, 또 그것이 전시되고 판매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경험하는 뿌듯함도 수용자들의 마음에는 변화의 씨앗으로 조용히 내려앉는다.

이렇듯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수용자들의 간절한 열망에 공감하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 직원들은 “한 사람의 변화가 곧 교정의 이유가 된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다져가기에 오늘도 여념이 없다.

mini interview

김영진 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직업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교정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산업 수요에 맞춘 체계적인 훈련과 민간 협력 기반의 실무 중심 교육이예요. 2년제 산업기사 과정부터 단기 실용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수용자 개개인의 역량과 진로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물론, 출소 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에도 최적화된 시설이고요. 직업훈련 교사들은 때로는 상담자이자 멘토로, 때로는 수용자의 삶을 바꾸는 촉매제로 기능합니다. 직업훈련이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수형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태도까지 바꾸는 모습을 볼 때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교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저희 직업훈련과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일 거예요. 교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심으로 소통하며 변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국

—— 콜로라도주 방문기



최규환
교정본부 복지과 교위

목차

- I. 들어가며
- II. 콜로라도주 교정본부 방문
- III. Denver Complex 기관 방문
- IV. Canon Correctional Complex 기관 방문
- V. 마치며

I.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자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다른 나라에 돈을 주고 수용시키는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과밀수용을 견디지 못한 수용자가 탈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과밀수용은 비단 수용자들에게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용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수용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수감자 수 세계 1위이자 연간 약 68조 원의 막대한 교정행정비용 절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 중인 미국을 방문하여 선진 교정시설의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우리나라 교정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콜로라도주 교정본부 방문

1. 개요

우리는 먼저 콜로라도주 교정본부에 방문하여 주 정부 교정행정 현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교정본부는 Colorado Springs에 위치하며 총 21개의 시설(직영 19개, 민영 2개)을 관할하고 있었다. 교정기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안 레벨(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레벨1부터 레벨5까지 다섯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주 교정시설의 일일 평균 수감인원은 팬데믹 이전 2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16,00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조금씩 수용인원이 늘어 2025년 현재는 17,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교정본부는 Executive Director¹⁾, 2개의 Deputy Executive Director²⁾ 및 7개 과, 감찰관, 공보관, 법률연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23-24 회계연도³⁾ 예산은 \$1,083,004,727(한화 약 1조 5천7백억 원)이고, 그중 연방 지원금은 \$3,246,495

1) 우리나라 교정본부장과 유사

2) 우리나라 교정본부의 정책단장과 유사

3) 미국의 회계연도는 통상 10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약 47억 원) 수준으로 약 1% 수준이다.

콜로라도주 교정본부의 비전 및 핵심 가치는 아래와 같다.

비전

- 오늘과 내일을 위한 보다 안전한 콜로라도 건설

미션

- 우리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며, 우리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콜로라도를 건설한다.

핵심가치 CDOC

- Community Safety(지역사회 안전)
- Dignity, Diversity, and Respect(존엄성, 다양성 및 존중)
- Opportunity(기회)
- Collaborative partnerships(협력적 파트너십)

2. 질의 응답

콜로라도주 공보담당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각과 과장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예산 관련으로, 콜로라도주 올해 예산은 약 \$1.3B 정도로 한화로 약 1.9조 원 정도이며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 기관별·프로그램별 예산이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다. 주 교정본부는 전체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집행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연방정부 역시 주 정부와 대화나 협력을 지속하는 관계이지만 주 정부와 감독관계는 아니며 예산 운영 등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산 비중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체 예산의 70% 정도는 직원 인건비이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직원 복지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변했으며 기관별 수용 레벨에 따라 예산에 차이가 있으며 최대 2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의료예산과 관련된 질문에는, 의료과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많게는 월 \$2,500(한화 약 360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아 치료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가족에게 청구하거나 보관금에서 강제로 징수한다고 한다. 다만 외부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많아 이를 통해 부족한 의료비 예산을 충당하기도 한다고 한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유사하나, 펀딩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가석방을 늘려 수용인원을 조절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수용자의 의료비 등 자부담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콜로라도주에서는 수감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공제 계약’을 통해 교도작업 임금에서 비용을 원천 징수하고 있으며, 다만 총임금의 80% 이상은 공제하지 않고 직계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통상 총 임금의 20% 정도는 교정기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수감비용으로 사용되며, 수용자가 발생한 치료비용 등을 변상하지 않을 경우 보관금 사용을 제한하여 수용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상을 유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영교도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1인당 하루 \$65 정도의 지원금은 민영교도소 운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의료비 등과 같이 종교단체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펀딩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도 하며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기도 한다.

교정교화 프로그램 관련 질문에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JYACAP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21세 미만의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기초적인 생활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음주운전자 치료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정본부 방문 및 회의 기념촬영

III. Denver Complex 기관 방문

1. 방문 개요

두 번째로 방문한 Denver Complex는 분류센터인 Denver Reception & Diagnostic Center와 여성 교도소인 Denver Women's Correctional Facility 2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직원 정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783명이며 분류센터는 269명, 여성 교도소는 32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원은 총 12% 수준이지만 임상(의료)부문은 약 25%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료부문의 공백이 심각했다.

2. Denver Reception & Diagnostic Center(신입 및 분류센터)

- 설립 연도 : 1991년
- 위치 : 3600 Havana St, Denver, CO 80239
- 수용 정원 : 570명(상주 수형자 96명⁴⁾)



우리는 먼저 모든 콜로라도주 교정시설의 신입·분류센터 역할을 하는 시설인 Denver Reception & Diagnostic Center에 방문했다. 주 교정시설에 배정된 모든 신입수용자는 이곳을 거쳐 가게 되며 2023~2024 회계연도(1년) 동안 약 7,597명의 수용자가 DRDC⁵⁾를 거쳐갔으며, 총 6,868명의 남성 수용자와 729명의 여성 수용자가 전입오고,

4) 우리나라의 미결 구금시설에서 운영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와 유사
5) Denver Reception & Diagnostic Center의 약자

약 5,906명의 남성 수용자와 877명의 여성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전출 갔다.

매일 30명 정도의 인원이 신입 심사를 받고, 남자는 월요일~금요일에 여자는 월요일~목요일에 아래와 같은 신입 심사를 받는다.

- ① 의료적 진단
- ② 치과적 진단
- ③ 정신 건강 검진
- ④ 교도소 강간 근절법 심사
- ⑤ 교육 테스트
- ⑥ 분류 및 범죄의도 파악을 위한 인터뷰
- ⑦ 정신 건강, 알콜 및 약물 중독, 성범죄자에 관한 전문 인터뷰

분류센터의 신입 심사 과정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눈에 띄는 장비가 있었다. 신입 수용자의 금지 물품 탐색을 위한 장치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람의 시각·촉각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금속물품 등을 찾아낸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 제품명 : BOSS III Metal Detecting Chair
- 제조사 : Security pro(미국)⁶⁾
- 가격 : \$8,019(한화 약 1,160만 원)
- 기능 : 고정밀 비접촉 센서를 활용해 복강, 구강, 질·항문, 비·구강 등에 숨겨진 금속 및 합금을 감지함
- 장점 : 간편한 작동 방법, 임산부에게도 무해한 센서로 직원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인권 침해 우려가 낮으며, 숨겨진 무기나 열쇠 등 금속 물체를 안정적으로 감지함

DRDC에는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위한 두 개의 관찰실⁷⁾과 의료 격리를 위한 음압 격리실을 갖추고 있으며 징벌을 받거나 콜로라도주 밖으로 이감될 수용자를 위한 격리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멘토링 및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Denver Complex 전체에는 19명의 멘토가 있으며 이 중 2명은 국가 인증 교육을 이수하여 동료 수용자들을 돕고 있었다.

6) 판매사 홈페이지 : www.securityprousa.com
7) 우리나라의 진정·보호실

3. Denver Women's Correctional Facility(여성 교도소)

- 설립 연도 : 1998년
- 위치 : 3600 Havana St, Denver, CO 80239
- 수용 정원 : 776명



다음으로 콜로라도주 교정본부에 있는 모든 경비등급의 여성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DWCF⁸⁾에 방문하였다.

이곳에서는 양육 중인 유아가 있는 경우 일과 시간에 교도소 내에서 육아가 가능하고 일과 후에는 외부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 교도소 내에는 중간처우 시설도 같이 운영 중이며 임신한 수용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 처우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 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작업장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 2002년부터 실시된 'K-9 프로그램'은 콜로라도 및 주변 유기견 보호소나 구조시설에 있는 개들을 훈련시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훈련견들은 4~8주 동안 24시간 내내 트레이너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개, 새로운 사람들에 노출되어 자신감 있고 사회적인 태도를 기르게 된다. 트레이너(수용자)들은 우리 출장단에게 훈련 성과를 열심히 설명해 주었으며 만족도가 아주 높아 보였다.

다음으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T/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용자들과 담당 강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일종의 자조모임으로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하여 수용자 교정교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8) Denver Women's Correctional Facility

마지막으로 DWCF의 작업장은 인쇄소, 컴퓨터, 커피 로스팅, 취사장, 미용실 등이 운영되며 작업 난이도가 높을수록 작업 장려금이 많아 최대 월 \$2,000까지 받는 수용자도 있다고 한다.

작업장려금을 많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봉급이 높을수록 인기가 많아 모범수 위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용자들의 행동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출소 시 사회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모아서 나가므로 재범률이 확연히 낮아진다고 한다.



Denver complex 방문 기념주화

IV. Canon Correctional Complex 기관 방문

1. 방문 개요

셋째 날, 우리는 숙소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달려 캐논 시티에 있는 Canon Correctional Complex에 도착하였다. 캐논 시티 교정시설은 여섯 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째 날 방문한 Denver Complex가 한 명의 소장이 두 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각각의 시설에 소장이 따로 있었다.

시설 초입에는 접견 등으로 방문한 민원인을 위한 통합센터가 있어 이곳에서 한 번에 민원 접수를 받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민원인들을 각 기관으로 안내해 주고 있었다.

8) Denver Women's Correctional Facility

2. Arrowhead Correctional Center

- 설립 연도 : 1989년
- 위치 : 602 Evans Rd., Canon City, CO 81212
- 수용 정원 : 520명



첫 번째로 방문한 ACC⁹⁾는 레벨 2의 보안등급을 가진 교정시설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업훈련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ACA(미국 공인 자격 인증기관)¹⁰⁾의 인증을 받은 약물 및 알코올 치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수형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성교도소와 마찬가지로 K-9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형자들을 직접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참여 후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한 수형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일 인당 하루 \$2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9) Arrowhead Correctional Center의 약자
10) American Archivists Certification Authority

3. Fremont Correctional Facility

- 설립 연도 : 1957년
- 위치 : 602 Evans Rd., Canon City, CO 81212
- 수용 정원 : 1,621명



두 번째로 방문한 FCC¹¹⁾는 레벨 3의 보안등급을 가진 교정시설로, 치료 커뮤니티 및 JYAC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2025년 1월 기준 수용자의 약 45.9%가 백인이며 30.3%의 히스패닉, 17.8%의 흑인 등 약 1600명이 수용되어 있다. 직원은 총 488명으로 행정분야에 48명, 보안 등 관리분야에 245명,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63명, 시설유지에 31명, 자원 봉사자 등 92명이 근무 중이다.

우리는 여러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JYACAP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동료 지원 프로그램, 양육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미국 전역으로 생산되는 가죽 및 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Correctional Industries Leather and Metal Products 작업장을 방문했다. 가죽제품으로는 벨트,

11) Fremont Correctional Facility의 약자

안장, 열쇠고리, 지갑, 서류가방 등을 만들고 있었고 금속 제품으로는 컨테이너, 덤프스터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생산된 제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수용자 구매물품, 의료비, 형사 배상금, 법원 벌금, 가족 부양비 등으로 사용된다.



가족 공예



금속 공예

셋째 날 둘러본 두 개의 시설은 비교적 보안 등급이 낮은 시설로 비교적 모범적인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었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모범적인 수용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자율처우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여자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동행 직원 없이 독보가 허용되어 수용자들이 도서관에 방문해 도서나 비디오 대여, 보드게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한 개의 사동에 넓은 공용 공간¹²⁾이 있고 수용자들은 모두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사동 중문은 닫혀있지만 각각의 거실 문은 일과 시간 내에는 열려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며 공용 공간에서 게임기, 자판기, TV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오락시설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었다.



출장단 사진



12) 미국에서는 hall이라고 부름

넷째 날 남은 두 개의 교정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다시 캐논시티로 돌아왔다. 우리는 먼저 가장 높은 보안등급인 레벨 5의 시설인 Colorado State Penitentiary에 방문하였다.

4. Colorado State Penitentiary

- 설립 연도 : 1993년
- 위치 : 602 Evans Rd., Canon City, CO 81212
- 수용 정원 : 725명



CSP는 가장 높은 보안 레벨(5등급)을 가진 고위험군 수용자를 비롯해 다양한 레벨의 수용자를 관리하는데, 시설은 여섯 개의 개별 주거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거단위는 8개의 데이홀¹³⁾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홀에는 15~16개의 수용 거실과 2개의 운동장 및 샤워실이 있었다.

CSP에 수용되어 있는 고위험군 수용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3) 우리나라의 1개 사동 개념

- MCUHR(management control unit high risk) : 초고위험 관리통제
- MCU(management control unit) : 관리 통제
- CCTU(close custody transition) : 근접 구금 지정

MCU, MCUHR 등급 수용자는 시설 및 자원봉사자, 직원, 다른 수용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감독 및 통제수준이 가장 높은 밀접 통제구역에 지정되어 수용되어 있었다.

밀접 통제구역은 앞서 둘러본 시설들과는 다르게 거의 24시간 내내 독거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통제된 상태로 수용자들을 채우고 있었으며 이곳의 수용자는 한번에 최대 8명까지 홀에서 레크리에이션이나 프로그래밍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CCTU는 점진적으로 완화된 통제시설로 수용자를 옮기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보다 덜 통제된 환경에 수용시킬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인 수용자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라고 한다.

이곳의 수용자들은 개방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범 수용자들과 다르게 거의 거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으며 최고로 숙달된 보안직원들을 선발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수용자들은 거실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리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전에는 사동 내의 공용 공간에서 실내운동만 할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부터는 야외 운동장이 건설되어 일주일에 세 번 야외 운동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5. Colorado Territorial Correctional Facility

마지막으로 우리는 CSP에서 10분가량 차로 이동하여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오래된 Colorado Territorial Correctional Facility으로 이동했다.

- 설립 연도 : 1871년
- 위치 : 602 Evans Rd., Canon City, CO 81215
- 수용 정원 : 985명



CTCF¹⁴⁾는 레벨 3의 보안등급을 갖춘 시설로 1980년대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주 전역에서 이송온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32개의 수용거실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다양한 장애인 수감자를 수용하는 미국 장애인법(ADA) 지정 시설이며, 1·3·7 사동에는 일반 수용자를 수용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수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생활 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청사 로비에는 수용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점심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고 주로 직원들이 간단한 식사를 위해 이용하지만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었다.

14) Colorado Territorial Correctional Facility의 약자

우리는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로 하고 햄버거 세트를 주문했다. 한 끼 가격은 \$9 정도로 외부 식당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지만 한국의 물가나 환율을 생각하면 그다지 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서울 동부구치소에 여성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따손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방처우가 가능한 기관에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카페나 식당을 확대 운영하면 수형자의 사회적응과 교정시설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식사를 마치고 둘러본 시설 내부에서는 전문대 입학과정,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교육과정, 요리 교육과정, 식품 서비스 교육과정, 세탁 및 유지보수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양한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당, 배관, 전기, 레크리에이션, 시설 유지보수 등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번호판 및 간판 제조공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콜로라도주의 모든 자동차 번호판 및 알루미늄 간판, 차량 그래픽, 콜로라도주 인장, 기타 기관인장 등을 제작하고 있었다.



V. 마치며

이상으로 우리 출장단의 모든 일정을 살펴보았다. 둘러본 콜로라도주 교정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으며 급식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1끼당 \$1.4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급식의 질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식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지역사회의 기부나 펀딩을 통해 식자재를 조달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부나 펀딩을 통해 좋은 처우를 하고, 수용자들이 게임기나 비디오 등 오락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없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콜로라도주에서는 외부의 민간인이 받는 최소한의 복지 지원보다 수용자들이 수용시설에서 받는 처우가 절대로 좋지 못하므로 국민들의 반감은 적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가 둘러본 모든 교정시설에서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임무에 대한 엄청난 적극성과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정기관 종사자들은 소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복직원까지 근무자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보안 직원들은 추가로 테이저건 등 무거운 보안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었다.

성별 구분 없이 여성 직원들도 남성 수용자를 거리낌 없이 관리하는 점도 놀라웠으며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수용자들도 대체로 밝은 모습이었고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작업이나 교화프로그램으로 인한 성공적인 사회복귀 기대감이 높아 보였다. 모범적인 수용자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처우와 높은 임금을 주는 작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미국 콜로라도주의 수용자 처우, 시설 운영, 예산 운영, 교도작업 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교정행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환대와 더불어 기관방문 일정 내내 우리와 동행하며 많은 도움을 준 콜로라도주 교정본부의 공보관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관 방문을 준비해 주신 각 기관의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규문주의적 구조의 징벌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캐나다 수형자 징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목차

- I. 서론
- II. 우리나라 징벌제도의 문제점
- III. 캐나다 징벌제도 일반
- IV. 캐나다 중징계 재판 및 불복제도
- V. 제안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2022년까지 교정기관의 ‘조사 및 징벌 등’에 대한 진정 건수가 5,11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교정본부는 법령 등의 개정으로 징벌 사유의 변화,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3명 이상 규정, 징벌 종류의 다변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징벌 규정과 관련하여 권고 결정을 받고 있고, 수용자들의 불만 역시 여전히 높다. 그 불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징벌제도가 규문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일찍이 하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변혁을 크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징벌제도를 징벌위원회에서 교도소 재판으로 변화시켜 징벌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였다. 이에 현재 우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캐나다 교도소 징벌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여 보겠다.

주제어 : 수용자징벌, 캐나다징벌, 징벌위원회, 징벌재판, 교도소재판



I. 서론

2022년 수용자 청원 사항 중 46건으로 3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사항이 ‘조사·징벌’이다. 2018년과 같이 많을 때에는 109건으로 ‘직원관련’ 청원을 제외하면 항상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¹⁾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2022년까지 ‘교정 시설 부당한 조사 및 징벌/계구 사용’에 대한 진정 건수가 5,113건이고, 최근 3년간(2020년 133건, 2021년 194건, 2022년 246건) 매년 50여 건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²⁾ 그렇다고 교정본부가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법령 등의 개정으로 징벌 사유의 변화,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3명 이상 규정, 징벌 종류의 다변화, 보호장비의 개선 등 계속하여 수용자 인권 존중을 실현함과 동시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징벌 규정과 관련하여 권고 결정을 받고 있고, 수용자들의 불만 역시 여전히 높다. 그 불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징벌제도가 규문주의³⁾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일찍이 하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변혁을 크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이다. 또한 저자가 2017. 11. ~ 2018. 5.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교정청에서 그 산하 교도소들의 징벌제도를 참관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교정기관에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현재 우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캐나다 징벌제도를 소개한 후, 대안을 제시하여 보겠다.

II. 우리나라 징벌제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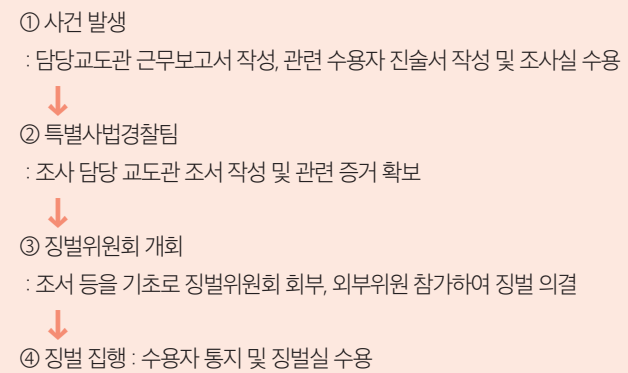
1. 징벌제도의 법적근거 및 절차

우리 나라 교정 기관의 징벌제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1) 교정통계연보(2023, 2023.7.) 법무부 교정본부, pp. 124-125
2) 국가인권위원회 통계(2022,2023.6.) 국가인권위원회, pp.104-105
3) 규문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관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 규문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이재상, 2005:37). 쉽게 설명하여 규문주의는 기소권과 심판권을 한 조직이 모두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형집행법」)⁴⁾ 제12장 제105조부터 제11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형집행법 시행령」)⁵⁾ 제12장 제129조부터 제13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⁶⁾ 제3장 제214조부터 제235조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현출하고 있다. 더 간단히 우리 징벌제도의 흐름을 표기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⁷⁾

〈표 1〉 징벌절차 흐름도



2. 징벌 사건 태양(態樣)과 문제점

징벌 사건의 양태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1) 수용자 VS 수용자

대표적으로 수용자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팀⁸⁾ 소속의 조사 담당 교도관은 싸움 당사자 양측 중 일방에 기울어짐 없이, 중립을 지켜 사안을

4) 시행 2022.12.27., 법률 제19105호, 2022.12.27., 일부개정
5) 시행 2020.8.5., 대통령령 제30909호, 2020.8.5., 일부개정
6) 시행 2024.2.8., 법무부령 제1072호, 2024.2.8., 일부개정
7) 더 자세한 내용은 “징벌제도의 실무적 고찰”(정유철·이윤호, 2016:238) 참고.
8)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정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시행 2023.8.29., 법무부훈령 제1485호, 2023.8.29., 제정)을 제정하였다.

조사하고, 징벌 결정에 나아갈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징벌 절차에 대한 지식이 많은 수용자가 공방 속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일어난 사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징벌 경험이 징벌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조사 담당 교도관의 역할이다.

징벌이 결정되고 나면 징벌을 받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청원, 소장면담,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징벌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효과 역시 크지 않다.

2) 수용자 VS 기관(교도소)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기물파손, 입실거부 등과 같이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불응 등 대다수의 규율 위반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경우에 상기 1)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담당 교도관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 담당 교도관 역시 기관(교도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에 응하는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는 조사 시작과 함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기관(교도소)와 대치를 이루는 수용자 측은 징벌 절차에 전문가인 조사 담당 교도관에 비하여, 수용자의 징벌 절차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기 마련인데,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는 현재의 징벌 절차 속에서 법적 조언을 구할 상대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규율 위반에 대하여 변호함에 있어 기관을 대표하는 교도관과 비교하면, 무기 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 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징벌위원회에서 징벌 결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위원을 포함한 징벌위원의 결정에 자신의 규율 위반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하루, 그것도 길지 않은 시간에 징벌 여부가 결정되는 징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서와 증거 등을 꼼꼼히 읽고 냉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기 1)과 같이 징벌 결정 후 불복 절차가 없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더군다나 수용자의 상대가 1)과 달리 교도소(기관)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권리구제 수단보다는 징벌 그 자체를 불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3. 문제점의 정리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수용자 징벌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1) 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제도

현행 교도소 등의 운영 책임은 소장에게 있지만, 수용자의 생활 전반, 특히 실질적인 규율의 유지와 관리는 보안과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의 규율위반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적발하는 것도 보안과장의 책임이고 그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업무도 보안과장 소속 하의 특별사법경찰팀에 있다. 또한 조사 후 징벌의 결정은 대부분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조사(수사) 및 그 판단의 주체가 교도관으로 통칭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문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⁹⁾

물론 교도소 내의 징벌제도에서 수용자와 교정 당국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의 구조적 특징을 그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 하지만 특별권력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판례 역시 고전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따금 특별권력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여도 고전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¹¹⁾

위와 같은 법 이론의 문제나 판례 등의 입장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징벌 절차 아래에서는 공정한 조사를 행하였고,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가 사실일지라도 조사 대상자나 제3자가 볼 때, 불공정한 조사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2)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

징벌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의 3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

9) 같은 의견, “(징벌위원회) 위원장도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되도록 하여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의결권자를 분리하여 징벌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하지만, 위원장이 동일한 교도소의 과장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징계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용자에 대한 객관적인 징계처분을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인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곽병선, 2009:183)

10) 소위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장(홍성대, 2010: 73~78).

11) 대법원 판례 1989.9.12. 89누2103, 대법원 판례 1995.6.9. 94누10870

였다.¹²⁾ 하지만 외부위원이 징벌위원회가 열리는 하루 동안에 조사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조사 대상자인 수용자와 충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에 맞는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자연히 징벌위원회가 진행되는 중에 외부위원은 규율을 어기고 수용되어 있는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의 이야기보다는 공무원인 교도관들이 조사한 사항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외부위원의 상당수가 해당 시설에서 교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자들로 위촉된다는 점, 외부위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도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징벌위원 수를 확대한다고 해서 징벌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징벌위원회 제도는 외부위원에게 징벌절차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맡기기에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곽병선, 2009:183).

외부위원들이 징벌위원회 과정 중 징벌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 대상자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있을 수 밖에 없다.

3) 징벌 의결 및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¹³⁾

현행의 법제 하에서는 징벌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헌법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을 이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더라도 권고하는 수준으로, 후에 재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소송, 헌법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재송 절차는 그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승소하기(일부 승소 포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이 단점이다. 이와 같이 즉각적인 불복¹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자가 징벌 조치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 소란, 자해 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만약 2차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제지하기 위한 강제력 사용, 그에 따른 징벌 절차, 그 후의 청문, 재송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력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12) 2008.12.22. 개정 시행되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 도입

13) 국제연합총회에서 1988년 12월 9일 투표없이 채택된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제30조 제2항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불복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 집행을 정지 기능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①조사담당 교도관은 불편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가(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와 연관),¹⁵⁾ ②외부위원은 징벌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도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가(징벌위원회의 운영 시간과 외부위원 채용문제), ③징벌 결정 후 불만이 있는 수용자는 불복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정승환, 2011:111-112) ; (김옥기·송문호, 2014:213-215))¹⁶⁾에 관한 것이다. 3가지 주안점을 두고 그 해결 방안으로서 캐나다 교도소 재판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찰한 것¹⁷⁾을 기술하여 보겠다.

III. 캐나다 징벌제도 일반

1. 연혁

1972년부터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교수는 BC(British Columbia) 주(州)의 중간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서 진행된 징벌 절차를 4개월간 관찰하고 교도소 징벌 체계 속에서 수용자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때, 소장이나 부소장 혹은 교도소 직원이 수용자의 징벌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잭슨 교수는 그러한 징벌 과정을 “캥거루 재판(Kangaroo Court)”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1973년에 교정 수사부(Correctional Investigator)가 신설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연구 모임(the Study Group)’은 ‘외부 의장(external chairperson)’에 의한 징벌 절차를 제안하였다.¹⁸⁾

마침내 1977년에 교정 전반에 관한 보고서인 ‘맥귀건 보고서(MacGuigan Report)’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잭슨 교수와 교정 수사부 연구 모임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15) “형집행법 제111조 제3항은 교도소장이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도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은 일견 형사소송법의 탄핵주의를 원용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를 구별한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주체가 요구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교도소장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말하자면 규문주의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정승환, 2011:107~108).

16)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에 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 권고”, 2003.6.23.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554621> (2024.7.9)

17) 「윤동호, “수용자 인권에 취약한 현 징벌제도 개선을 위한 ICP제도의 비교 연구”, 법무부, 훈련보고서, 2018,을 캐나다 교정관련 법령의 수정에 따라 다시 정리하였음.

18) 그 ‘연구 모임’의 의장이 제임스 밴투어(James Vantour)였는데, 그래서 그 제안서를 ‘밴투어 보고서’라고 한다.

교정 징벌 체계가 공정한 징벌 법정에 의해 운영되며, 그 법정은 ICP(Independent ChairPerson)가 주재하고 징벌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ICP는 법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 즉시 캐나다 연방 교정청은 캐나다 전역의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maximum-security institutions)부터 징벌 재판(disciplinary court)을 시작하였고, 1980년까지 중간 보안 등급의 교도소(medium-security institutions)에도 확장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에 모든 연방 교도소¹⁹⁾에 적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징벌 절차

1) 징벌 규정

캐나다 연방 교도소들의 징벌 절차는 우리의 「형집행」에 해당하는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약칭 : CCRA)²⁰⁾와 「형집행법 시행령」,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Regulation(약칭 : CCRR)²¹⁾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더욱 자세한 절차 등의 사항은 Commissioners' Directive(약칭 : CD)²²⁾ 580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항은 직원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또는 반입 금지물품의 소지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규율 위반사항과 유사하다. 또한 적시된 위반 사항을 시도하거나²³⁾ 또는 규율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을 돕는 행위 역시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 21가지의 위반 사항이 있다. 아래부터는 위의 관련 규정²⁴⁾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다.

19) 캐나다 연방교정청 산하의 연방 교도소는 2년 이상의 형기가 확정된 수형자만 수용. 미결수나 2년 미만의 수형자는 주(州) 소속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 따라서 연방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들의 신분은 모두 수형자이다.
20) Current to June 19, 2024 / Last amended on June 23, 202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4.6/> (2024.7.9)
21) Current to June 19, 2024 / Last amended on November 30, 2019,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2-620/index.html> (2024.7.9)
22) In Effect: 2021-06-28, <https://www.canada.ca/en/correctional-service/corporate/acts-regulations-policy/commissioners-directives/580.html> (2024.7.9), 우리나라의 지침에 해당하는 규정.
23) 우리 징벌 사유에는 없는 미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도 미수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윤동호, 2023)
24) CCRA의 징벌(Discipline) 장 제38조부터 제44조, CCRR의 수형자 징벌(Inmate Discipline) 장 제24조부터 제41조, CD 580

2) 내부적 해결(Informal Resolution)²⁵⁾

수형자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직원은 반드시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소장 또는 소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직원(보통은 간부 직원)은 징계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내부적 해결’은 수형자를 징벌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문서로 그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내부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형자와 직원 또는 관련된 수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내부적으로 해결되면 수형자는 더 이상 징벌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수형자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수형자가 징계 절차에서 위반 사실이 결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교도소 측에서 수형자에게 내부적 해결을 위한 기회 등을 주지 않는다면, 수형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법률 서비스²⁶⁾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적 해결’과 비슷한 절차는 우리 역시 담당 교도관의 재량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는 재량적인 경우라면, 캐나다의 ‘내부적 해결’ 절차는 의무적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3) 공식 징계 절차의 시작(경징계, 중징계 구분)

‘내부적 해결’ 절차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은 공식 징계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공식 징계 절차의 시작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징계 청문(minor hearing)과 중징계 재판(major/serious hearing/court 또는 institutional court)²⁷⁾으로 나뉜다. 그 구분은 규율 위반 사항에 따라 확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이 작성한 관찰 보고서(Observation Report)나 그 후에 작성되는 수형자 규율 위반 보고서(Inmate Offence Report)에 따라 징계 절차가 승인되면 규율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고 규정과 심각성에 따라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결정된다. 경징계에 회부 될지 또는 중징계에 회부 될지를 결정하는 직원은 징계 절차에 이르게 한 사고와 어떤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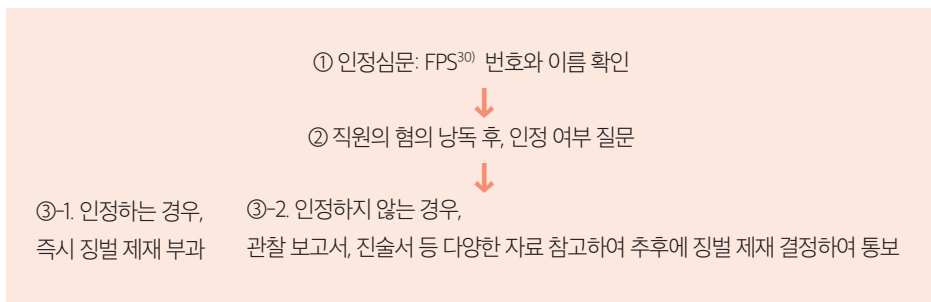
25) CD 580, paragraph 12, 13
26) 수형자는 징벌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등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27) 중징계 청문, 중징계 재판 또는 교도소 재판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이 논문에서는 경징계 청문과의 구별을 위하여 중징계 재판, 교도소 재판 또는 징벌 재판으로 번역하여 지칭하겠다.

도 없는 자이어야 한다.²⁸⁾

4) 경징계 청문

경징계 청문은 보통 주 1회 시행되고 있지만, 각 교도소의 상황에 따라 그 실정은 유연한 편이다. 경징계 청문과 중징계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ICP(Independent Chair Person)²⁹⁾이나 간부 직원(Correctional Manager)이나에 달려있다(CCR 27 (1), (2)). 따라서 경징계 청문은 간부 직원 중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직원이 규율 위반 의심 수형자를 불러서 절차가 개시된다.

〈표 2〉 경징계 청문의 절차



경징계 청문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수형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경고(warning) 정도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fine)³¹⁾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벌금 처분마저도 일정 기간 유예 처분을 내린다. 경징계 청문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징벌 절차의 목적은 수형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경징계 청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징벌제도와 우리의 징벌제도의 차이점이 가장 명확한 부분이 중징계 재판과 불복제도가기 때문에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28) CD 580, paragraph 16

29) 후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간단히 중징계 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30) FingerPrint System의 약자로서, 지문을 통하여 고유 인식 번호를 부여한다. 우리의 수용번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31) 경징계 청문에서는 최대 50달러(CCR 36 (1) (a))이지만, 보통 5달러 정도 결정한다. 캐나다 달러를 고려하면(1CAD=995.13원, 2024.3.30. 기준) 대략 5,000원 정도이다.

IV. 캐나다 중징계 재판 및 불복제도

1. 중징계 재판

우리 교정기관의 징벌위원회 제도와 달리 중징계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의 형식을 띠고 있다.³²⁾ 따라서 수형자와 교도소(기관)의 대립이 있는 중징계 재판은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의 모습을, 수형자와 수형자의 대립이 있는 중징계 재판은 우리나라의 민사 재판과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 중징계 재판의 대부분의 모습이 수형자와 교도소(기관)의 대립이 많기 때문에,³³⁾ 형사 재판의 모습을 상징하고 아래에 기술하겠다.

1) 재판의 구성원

① ICP(Independent ChairPerson)

ICP는 우리 형사 재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지방 교정청에는 총 4명의 ICP가 있다. 그들은 총 7개의 교도소에 할당되어 중징계 재판이 있을 때 참석하여 재판을 주재한다. ICP는 수형자에게 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은 수형자가 무엇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수형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ICP는 반드시 양쪽의 사정을 모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ICP 공석이 생기면 지방교정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³⁴⁾를 통하여 자격 조건³⁵⁾ 등이 포함된 채용 공고를 하게 되고, 지방교정청 소속의 소장과

32) 재판의 형식을 띄기는 하지만, 중징계 재판의 결과는 일종의 처분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의 판단에 해당한다.

33) 수형자와 수형자가 대립하는 경우는 내부적 해결이나 경징계 청문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해를 동반하는 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중징계 재판이나 형사 기소가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형사 기소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나라는 징벌이 행정 처분의 성격이므로 형사 기소와 징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에, 캐나다는 형사 기소가 발생하면 징벌 절차는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징벌 절차를 연기한다.

34)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링딘(Linkedin) 등

35) 캐나다 연방 교정청 본부(Correctional Operations and Programs Sector) 부서에서 받은 자료.

- 필수 조건

형사 사법 절차에 참가한 3년간의 경험,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술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작문 능력, 원활한 대인 관계, 리더십, 신중함, 가치관과 도덕, 2개의 언어 사용 능력(영어와 프랑스어, 필요한 경우)

- 우대 조건

ICP로 일한 경험, 연방 교도소나 수용 시설에서 수형자와 함께 일한 경험, 교도소 징벌 절차의 지식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캐나다 연방교정청 본부에서 제공하는 평가 기준서를 이용하여 지원자의 자격 조건을 평가하고 그들을 면접한 후 적합한 자를 캐나다 연방교정청 본부에 추천한다. 본부는 ICP 지원자 명부를 장관에게 보내고, 장관은 5년의 재임기간을 가질 ICP를 지명하게 된다. ICP는 장관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서 캐나다 연방교정청과 독립된 지위를 가진 채 중징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② 변호인

중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수형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수형자 법률 서비스(Prisoners' Legal Services)라고 한다.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로스쿨 학생과 국선변호인(duty counsel)이 있다. 로스쿨 학생은 보통 지방 교정청이 속하는 지역 로스쿨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재학생³⁶⁾으로서 교도소 법률사무소(Prison Law Clinic)에 소속된다. 교도소 법률사무소에는 변호인 역할을 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감독자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 로스쿨 학생들이 수형자를 변호할 때 자문을 해주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교도소 법률사무소 로스쿨 학생들과 사무실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해결하여 국선변호인에 비하여 장점이 되기도 한다.

온타리오 지방교정청에 속해 있는 교도소에 참가하는 퀸즈 대학교(Queen's University)의 로스쿨 학생은 총 18명이다. 모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다. 그 외에 퀸즈 교도소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로스쿨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고 같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현직 변호사이자 감독자인 경험 많은 변호사가 3명이 상주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학생과 같이 직접 중징계 재판에 참가하고, 수형자와 상담 등을 하는 수석 변호인이 1명 있다. 수형자간 폭력 사건과 같이 수형자끼리의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한쪽 편의 수형자가 국선변호인을 선택하면 다른 반대편은 로스쿨 학생을 변호인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이다.

③ 중징계 재판 보조자(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중징계 재판 보조자는 교도소를 대표해야 하는 등 징계 재판에 중요한 역할 수행을 맡는다. 대부분 간부 직원이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건을 검토하고 수형자의 규율

36) 로스쿨 재학생은 2가지 종류의 참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학기 중(9월 ~ 4월) 참가와 여름 방학(5월 ~ 8월) 중 참가로 나뉘 수 있다. 학기 중 참가하는 로스쿨 학생은 학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여름 방학 중 참가하는 로스쿨 학생은 학점 대신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 모두 일종의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서 졸업 후 받아야 할 실무수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재판은 아니지만 그 구조가 유사한 교도소 재판을 경험할 수 있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인기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한다.

위반 혐의를 유죄로 밝혀줄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교정 사고 등을 예방하며, 수형자들의 중징계 재판정 출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감독하고, 로스쿨 학생이나 국선변호인의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재판 서기(Court Clerk)

재판 서기는 ICP와 중징계 재판 보조자, 변호인 모두를 돕고, 재판 일정을 관리하며,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간부 직원 중에서 법률 지식이 있는 자가 지명된다. 또한 수형자가 중징계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절차 진행 전에 녹음이 될 것임을 공지하고 녹음을 진행한다.

2) 재판 전 절차

수형자가 징계 위반으로 중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수형자는 수형자 법률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⁷⁾ 만약 수형자가 변호인과 상담 전에 중징계 재판에 소환되면, 그 재판 시작 전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수형자 법률 서비스는 수형자가 중징계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등을 상담해 줄 것이다.

수형자가 중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직원은 반드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서면으로 수형자에게 공지해야 한다(CCRA, 42). 수형자는 자신의 사건을 알 권리와 징계 절차 방어를 위해 준비를 할 권리³⁸⁾를 가진다. 공지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CCRR, 25 (1)).

〈표 3〉 재판 전 수형자 공지사항

- 징계 혐의 사건의 시간, 날짜 그리고 장소를 포함하여 수형자가 했던 모든 행위
- 징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의 요약
- 재판의 시간, 날짜 그리고 장소

37) 물론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형자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8) CD 580, paragraph 20, 수형자는 관찰 보고서 또는 재판에서 ICP에게 주어지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3) 첫 재판

첫 재판에서 ICP는 수형자가 무슨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의 요지를 알려줘야 한다. ICP는 수형자가 징계 위반 사항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ICP는 수형자에게 ‘혐의’의 인정 여부를 물어볼 것이다. 만약 수형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ICP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요약하고 수형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수형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징벌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³⁹⁾ 그 후 ICP는 수형자가 받을 징벌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다. 수형자가 ‘혐의를 부정’하거나 답하지 않으면, 수형자는 재판을 계속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형자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수형자의 재판에 증언해 줄 증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수형자는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형자는 역시 재판에서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첫 재판에 신문할 직원이 없다면, 수형자는 ICP에게 그 직원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으로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재판 절차

수형자의 중징계 재판에서, 수형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CCRR, 31 (1)).

〈표 4〉 수형자의 중징계 재판 중 권리

- 재판을 수행하는 직원(중징계 재판 보조자) 심문하기
- 수형자의 방어권을 위하여 증거 제시하기
- 수형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증인 신문 요청하기⁴⁰⁾
- 증거 및 증거 서류 검토하기
- 선고를 포함하여, 재판 중에 의견 진술하기

캐나다 연방교정청을 포함한 교도소 측(이하 ‘교도소 등’)은 반드시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거증책임’이 교도소 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형자는 자신의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교도소 등이 증거로

39) CD 580, paragraph 40
40) ICP는 증인 신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거절된다면, ICP는 반드시 증인이 증언하려고 했던 증거를 인정해야 한다.

제출한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교도소 등이 수형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형자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형자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ICP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반드시 수형자가 규율 위반이라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 심증이 만족되어야 한다(CCRR, 43 (3)). 이것은 ICP에게 수형자가 유죄라는 사실이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형자는 적절한 시간 내에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교도소 등이 불합리한 이유로 수형자의 재판을 연기한다면, 수형자는 사건의 기각을 신청할 수 있다. 수형자는 처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수형자의 모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도소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거나 수형자가 재판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만 수형자의 재판 참가를 ICP가 제한할 수 있다.

5) 징벌 부과

수형자의 징계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수형자에게 그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의 징벌 사항 중 1개 이상을 부과할 것이다.

〈표 5〉 징벌의 종류⁴¹⁾

- 경고 또는 훈계
- 특권의 상실⁴²⁾
- 배상 명령(수형자가 일으킨 손상에 대한 지불)
- 벌금⁴³⁾
- 추가 작업⁴⁴⁾

41) “최대 30일까지의 격리((f) in the case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segregation from other inmates — with or without restrictions on visits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rsons from outside the penitentiary — for a maximum of 30 days.))” (일종의 금치) 처분이 있었으나, 수형자 인권 보호의 사유로 2019년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42) ①외부에서 수형자 운동(그러나 최소한 1시간은 보장해줘야 함) ②텔레비전 시청과 게임 ③취미 수공예 ④ 음악과 악기 연주 ⑤다른 수형자와 어울리는 기회
43) 경징계 청문은 25달러, 중징계 재판은 50달러까지 벌금 부과 가능
44) ICP는 수형자에게 징계 처분을 위한 제재로서 추가 작업 수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수형자의 여가 시간에 수행된다. ICP는 수형자가 해야 할 작업의 종류와 끝나는 시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경징계 청문 과정에서는 최대 10시간, 중징계 재판에서는 최대 3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6) 중징계 재판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

중징계 재판 과정까지 가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수형자는 유죄 인정이 없는 것을 뜻하고 그 자체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내포한다. 재판 과정이 길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변호인이 수형자 자신을 대변해 주고, 교도소 등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와 함께 수형자의 규율 위반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려고 노력한다. 결과론적으로 수형자 입장에서 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최소한 재판 과정이 공정했음은 인정하고 수형자 자신의 재판 결과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징계 재판 보조자로 대표되는 교도소 등도 치열한 재판 과정을 거친 재판 결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긍한다. 중징계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행동이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점들이 바로 교도소 내에서 재판을 하며 얻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변호인들 역시 생각한다.

2. 징계 재판의 불복⁴⁵⁾

수형자가 징계 절차에서 유죄를 받거나 불공평하게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수형자는 그 결정에 한 번 더 불복할 수 있다. 경징계 청문은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고충처리 과정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중징계 재판의 ICP 결정에 대한 불복은 수형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여야 한다.

1) 변호인 없이 즉시 유죄 인정한 경우

수형자가 첫 재판 날에 변호인 선임도 없이 바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제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떤 불복권도 가질 수 없다.⁴⁶⁾ 첫 재판에서 변호인없이 바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ICP는 일반적으로 수형자에게 큰 제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불복하려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2)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한 경우

변호인을 둔 채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를 인정한 후, 징벌 처분과 같은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수형자는 ICP가 재판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보지 않고, 유죄 인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복을 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ICP에게 그들의 결론과 사건의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하되, 사법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ICP는 검토 후에 다시 같은 결정을 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재차 결정이 나온 후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는 없다.

3)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수형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징계 재판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 마지막에 나온 재판 결과(징벌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형자는 ICP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ICP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 정부 판사에게 사법적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적 검토를 위한 신청은 반드시 중징계 재판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과 함께 수형자는 즉시 재판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요청해야 한다.⁴⁷⁾

중징계 재판의 사법적인 검토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불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Appeal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불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서는 사법적 검토를 위한 정당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결정해 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수형자의 사건에 변호사를 지명할 것이다.

사법적 검토를 위한 재판은 연방 정부 판사가 그 사건을 주재할 것이고 연방교정청은 교도소 등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 사법적 검토에

45) West Coast Prison Justice Society, “The Prison Discipline Process, The Law Foundation of British Columbia”, pp. 17-18, 2018, <https://prisonjustice.org/wp-content/uploads/2019/01/Federal-Discipline-2018.pdf> (2024.7.9)

46) 변호인 선임이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복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47) 연방교정청은 재판 과정을 녹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형자는 그 녹음 파일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CCRR, 33 (1)-(3)).

의한 결정은 더 이상 불복할 수는 없다.⁴⁸⁾

〈표 6〉 수용자 징벌 절차 비교

구분		한국	캐나다
		합의제(위원회)	판결(재판)
사전 중재과정		재량	의무(내부적 해결)
외부인사		외부위원 3인 이상	ICP 1인
변호인 참여 여부		X	O
징벌종류	금치	O	X
	벌금	X	O
불복절차 여부		X	O

V. 제안 및 결론

1. 제도 도입상의 문제점

궁극적으로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징벌 절차와 불복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겠으나, 구체적인 제안에 앞서서 우리 법체계와의 상충가능성 등을 염두해 두고, 몇 가지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

1) 구성원의 법적 지위(ICP와 변호인)

중징계 재판 보조자와 재판 서기는 현재의 특별사법경찰팀의 조사 담당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캐나다 연방교정청 역시 교정 공무원이 맡고 있다. ICP와 징벌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의 징벌제도 하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구체적인 근거 규정 역시 없다.

48) 소장은 교정교화를 위한 또는 인권적인 이유로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CCRR, 41 (3), 소위 징벌취소권)을 가지는데, 사법적 검토 결정 전에 행사할 수 있다.

① 징벌대상자의 변호인 조력권 인정 여부

수용자의 징벌은 금치 처분의 경우 교정시설 내 별도의 공간인 징벌실에 갇혀 처우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벌 성격이 있으며, 교정 성적 및 처우 등급, 가석방에도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⁹⁾ 따라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⁵⁰⁾과 같이 수용자 역시 징벌과 같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현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9조 4호에서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변호인 선임권이 창설된 것은 아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변호인 선임권의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고, 형벌 성격과 행정처분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 징벌은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위 관례에 의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ICP의 법적 지위

ICP의 법적 지위를 논하기에 앞서 현행 법률 하의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의 법적 지위를 먼저 살펴 보겠다. ICP는 교정기관 밖의 인사라는 점에서 외부위원과 그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징벌제도에 있어서 외부위원은 행정임무를 자기 책임 하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보조인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형집행법」 제111조 제7항에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외부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다. ICP 역시 현재의 외부위원과 같이 독립성을 가지고 징벌재판을 주재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까다로운 선발 조건과 장관에 의하여 지명되는 점, 5년이라는 긴 임명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49) 손정빈, “인권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징벌, 자의적이선 안 돼’”, <뉴스시스(NEWSIS)>, 2019.03.12.,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312_0000584613&clD=10201&plD=10200\(2024.7.9\)](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312_0000584613&clD=10201&plD=10200(2024.7.9))

50)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8.3.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

공무수탁사인보다는 더욱 공무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외부위원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캐나다의 중징계 재판이 도입되면 관련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중징계 재판 도입상의 문제점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징벌 재판 제도에 관하여 앞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수용자의 인권 보호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에는 적합한 제도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징벌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은 행정적인 준비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징벌제도 하에서는 조사기간이 최장 17일(조사기간 10일+연장 7일)⁵¹⁾로서 늦어도 20일을 전후하여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징벌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징벌 재판의 경우에는 사안의 조사, 변호인 출석, ICP의 징벌 재판 주재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1달을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사안에 따라서 3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절차는 현재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징벌 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조사 거실에 수용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많은 사건의 경우에 실제 징벌을 집행함에 있어 조사 기간 등이 산입되어 집행된다. 하지만 징벌 재판을 도입하여, 현재와 같이 조사 거실에 수용하게 되면, 최장 45일(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여 최대 금지일인 30일의 1/2 가중,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8조 제1항)을 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 거실 우선 수용보다는 본 거실 우선 수용으로 조사 관행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 중징계 재판은 영미법의 형사절차인 어레인먼트(Arraignment), 죄상인부절차(罪狀認否節次)⁵²⁾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데, 이것 역시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로의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징벌 재판의 도입으로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용자의 인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적·행정적 준비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캐나다 불복 제도의 도입상의 문제점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수용자 징벌에 대한 불복 제도는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복 제도의 진행에 있어 어레인먼트(Arraignment, 혹은 죄상인부절차)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법제하에서 상충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수용자의 징벌과 관련하여 불복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복 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역시 수용자가 다른 쟁송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교정기관을 상대로 불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면,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2차, 3차의 교정 사고를 예방하고, 다른 행정 절차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안

앞에서 ①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제도 ②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 실질적 권한의 문제 ③징벌 결정 후 불복 절차의 불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징벌제도와 불복 제도 도입으로 모두 해결 가능하다. 우리의 형사재판 구조와 유사한 캐나다 중징계 재판은 규문주의적인 구조를 타파하고, ICP라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인사를 통해 징벌 결정의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연방교정청처럼 불복 절차의 신설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적받아 왔던 불복 절차의 불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징벌위원회 제도에서 일종의 징벌재판을 포함한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징벌제도로 갑자기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었고, 변호사의 수 역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ICP와 수용자 변호인을 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한 특별사법경찰팀의 발족과 함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교도관이 더욱 늘어나 중징계 재판 보조자나 재판 서기의 역할 역시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1950. 3. 2. 행형법의 제정과 함께 지금까지 유지되는 징벌위원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받아들여야 징벌재판으로의 전환을 할 시기가 되었다.

51)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20조 제1항

52) 영미법상의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이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읽어주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물어 피고인이 유죄임을 시인하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즉시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무죄임을 주장하면 비로소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제도이다. 「죄상인부절차」, <두산백과>, [https:// 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4581&cid=40942&categoryId=31721](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4581&cid=40942&categoryId=31721) (2024.7.12.))

3. 결론

중징계 재판과 같은 교도소 재판이 징벌위원회와 비교하면, 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으로 밝힌 바와 같이, 시간과 비용이 더욱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많은 청원과 진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행정 비용을 고려한다면 교도소 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은 더 이상 단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변호인 등의 선임과 함께 공정한 재판의 형식을 통하여 형벌적 성격과 침익적 행정처분 성격이 강한 징벌 처분을 수형자에게 부과한다면,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형집행법」제4조(인권의 존중)에도 부합한다.

2018년 당시 4명의 ICP 중 수석 역할을 하였던, 콜린 라이트(Collin Wright)와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콜린 라이트는 30년 이상의 변호사 경험이 있는 ICP로서,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중징계 재판과 같은 교도소 재판을 도입한 것은 캐나다 교정사(矯正史)에서 획기적인 사건(milestone)이라고 하였다. 교도소 재판은 징벌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형자 인권의 최대 보장과 함께 더욱 두터운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교정기관 역시 공권력의 확립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수용자의 권리 보장이 공권력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제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징벌 재판으로의 전환을 피할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하며 부디 본 논문이 앞으로의 교정 행정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곽병선,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 현황과 진단”,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6, pp.183, 2009.
김옥기/송문호,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vol.63, pp.213-215, 2014.
윤동호, “수용자 인권에 취약한 현 징벌제도 개선을 위한 ICP제도의 비교 연구”, 법무부, 훈련보고서, 2018.
_____, “수용자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33 No.2, 2023.
이재상, 『제6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정유철/이윤호, “징벌제도의 실무적 고찰”,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26, pp.238, 2016.
정승환,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pp.107-108, 2011.
홍정선, 『제9판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죄상인부절차”,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24581&cid=40942&categoryId=31721>(2024.7.12.)
Commissioner's directive 580: Discipline of inmates, In Effect: 2021-06-28, <https://www.canada.ca/en/correctional-service/corporate/acts-regulations-policy/commissioners-directives/580.html>(2024.7.9)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Current to June 19, 2024 / Last amended on June 23, 202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4.6/\(2024.7.9\)](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4.6/(2024.7.9))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Regulation, Current to June 19, 2024 / Last amended on November 30, 2019, <https://laws.justice.gc.ca/eng/regulations/SOR-92-620/index.html>(2024.7.9)
West Coast Prison Justice Society, “The Prison Discipline Process, The Law Foundation of British Columbia”, pp. 17-18, 2018, <https://prisonjustice.org/wp-content/uploads/2019/01/Federal-Discipline-2018.pdf>(2024.7.9)

성폭력사범의 인문융합치료 기반 ——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하)



김진선
인하대학교 인문학술연구교수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IV.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7개의 영역과 22개의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고,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성폭력사범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체적 내용	핵심 주제	영역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털어놓을 수 있어 앞으로의 상담이 기대됨	상담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
깨져버린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음	가족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음	안정된 삶에 대한 열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음	사회적 인정욕구	내면 성찰과 반성
죄의 인정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음	죄의 인정과 변화를 위한 성찰	
나를 믿고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함	지지와 신뢰에 대한 갈망	
술에 취해 살다가 일탈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후회됨	과거 일탈 행동에 대한 반성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해 삶의 방향에 혼란을 느낌	가족관계에서의 혼란과 상처	가족관계와 내면 갈등
부모의 무시와 비난으로 인해 나의 존재를 부정당함	자존감 손상과 존재가치의 부정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음	부양책임으로 인한 상처와 부담	소통과 경청을 통한 회복
타인과 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갈등을 겪음	소통의 어려움과 갈등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느낀다는 것을 깨달음	경청이 주는 위안	
부모에게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경계를 침범당한 경험이 떠오름	경계 침해로 인한 고통	경계 침해에 대한 인식
타인의 정서적, 신체적 경계를 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함	경계 침해에 대한 후회	
성(性)범죄에 대해 여성이 느끼는 공포를 알게 됨	성(性)범죄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 이해	성(性)인식 개선과 피해자 공감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인식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침묵이 동의로 간주될 수 없음을 깨달음	성(性)적 동의의 중요성과 존중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나의 죄를 인정함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성(性)범죄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싶음	피해자에 대한 깊은 사과	사회적 책임과 결심
출소 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함	사회적 책임 의식과 결심	
성(性)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건강한 경계를 지키겠다고 결심함	건강한 경계 존중에 대한 결심	
감정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함	진실된 소통 의지	

1.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C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으나,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D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내적 성장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B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지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며 변화와 성장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며 내면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그려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겠다.
(한줄 쓰기, 1회기, C)*

가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고 나가서 가족들에게 용서받고 잘 지내고 싶다. (한줄 쓰기, 7회기, D)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는 길 같음.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름.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이 길 너머에 우물이 있어서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있는데 또 그 물에 구더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직선 길일 수도 있고 꼬불꼬불 길일 수도 있고. 내 삶에서 내가 여기 들어올 줄 몰랐고, 끝이 없는 것 같음. (1회기, B)

잘 살았다. 너 열심히 일했고, 부모로서 잘했고 친구로서 잘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보내주는 거. (2회기, B)

2. 내면 성찰과 반성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참여자 D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에서 이유를 물어보지만, 본인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혼란스러워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자신의 행동 동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행동 동기를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B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지지를 통해 그는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였다. A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의 폭력 사건을 회상하며, 당시에는 행동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였다. A는 타인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며 변화를 위한 요소를 인식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내면 성찰과 반성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나도 몰라서. 나가서 치료받으면서 알아가야 하는 상황. 항상 사람들이 왜 찍었는지 물어보는데 나도 이유를 몰라서 답을 못함. (2회기, D)

좋은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거니.

저도 생각하는 걸 바꿔서. (5회기, B)

할머니 댁이 00인데, 친구들이랑 놀러갔다가 술 먹고 시비가 붙었음.

우린 여러 명이었고 상대는 혼자였음. 처음은 아닌데 그렇게 큰 사건은

처음이었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것임. 구속은 안 됨. 장기 보호관찰 받음.

(6회기, A)

3. 가족관계와 내면 갈등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관계에서 겪었던 상처와 혼란을 통해 내면적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A는 자신이 18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친부모가 따로 있었고 현재의 아버지는 새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자라왔기에, 친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알게 된 친부모와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C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받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하였다.

부모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외면당하고 비난받았던 기억이 현재까지도 잔재해 있으며, 가족으로부터의 무관심과 학대가 그의 자아와 관계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D는 전통적인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특히 명절에 장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크게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감 속에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가족 내 역할에 대한 책임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족관계에서 겪은 상처와 혼란이 자신에게 내면적 갈등을 일으킨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할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

친아버지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나는 몰랐음. 18살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원래 지금 아버지가

새아버지라는 걸 그때 알게 됨. 친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힘들었음.

(6회기, A)

19살 때. 집에서 시키는 일만 하며 살다가. 잘 안 되니 잔소리를 하심.

쓰러졌는데 그때 쓰러지면서 들은 말이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였음.

그 당시에는 요리가 하고 싶긴 했는데. 말했는데 묵인 당했음. 초1부터 손으로 머리도 맞고. 팔 여기도 맞고. (5회기, C)

근데 저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게 컸는데 그게 잘 안 되니.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명절이 너무 싫었음. 제사, 장손 이런 거. (11회기, D)

4. 소통과 경청을 통한 회복

연구참여자들은 대인관계와 소통에서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직장 및 가족 내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보였고, 그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을 겪었다고 언급하였다. B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꼈으며, 자신 위주로 관계를 이끌어 가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이는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태도로 이어졌으며, 결국 소통에서 갈등을 빚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C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위로받는 경험을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 자신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깨닫고, 어린 시절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받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개방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알게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앞으로의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감정을 더욱 고려하고, 소통을 통해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삼게 하였다.

*직장 사람들과 관계를 내 위주로 하려고 했고 나와 맞지 않으면 답답했음.
(12회기, B)*

아침에 가족 얘기해주신 거. 내가 울었는데, 살면서 나한테 '그래도 된다'고 말해준 게 손에 꼽음. 거의 없음.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고, 거꾸로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 조그맣을 내가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12회기, C)



5. 경계 침해에 대한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타인에 의해 경계가 침범된 경험을 떠올리며, 경계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C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대화에서 기본적인 관심과 경청이 부족했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경계가 지속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당해왔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경계 존중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참여자 D는 타인의 경계를 침범했던 자신의 과거 행동을 성찰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과거에 불법촬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모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합리적 사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타인이 불편해할 수 있는 행동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웠고, 이를 통해 더 책임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 자체가 침범당한 경험이 아닐까. 언어 쪽으로 많이... 오전에 본 '알사탕'동화 그 장면에서 아들한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는 게 없다는 게 좀 그랬다. (12회, C)

누가 내게 오는 것도 불편한데, 내가 가는 것도 불편하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모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것이 후회된다. (12회기, D)

6. 성(性)인식 개선과 피해자 공감

연구참여자들은 성(性)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성(性)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성(性)범죄가 주로 여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과 늦은 밤에 이러한 두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B는 남성과 여성의 안전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성(性)범죄가 특정 성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C는 성(性)범죄 피해 영상이 유포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법 촬영이 단순한 사적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했다. 참여자들은 성(性)범죄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 D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끼친 심각한 영향을 이해하고 후회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형벌을 통해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A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함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성(性)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확장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성(性)범죄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성은 늦은 밤 성범죄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음. (14회기, B)

유포되는 시점에서 2차 피해가 예상됨. 생각보다 유포 비율과 협박 비율이 높아서 놀랐음. (14회기, C)

내 과거의 모습과 비슷해서 후회된다. 성관계 영상을 찍고 친구와 같이 본적이 있다. 내 자신이 한심하다. (18회기, D)

피해자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번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생각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니 반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마무리 글, 24회기, A)

7. 사회적 책임과 결심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출소 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변화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겠다고 하였다. 이들이 느낀 사회적 책임감은 단순한 교화의 의미를 넘어 자신과 타인 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새로운 삶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결심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재사회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였으며, 자신이 속할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개방하고 정역을 살면서 책임지는 모습,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함. (19회기, C)

앞으로 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헤쳐가야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었다. (한 줄 쓰기, D)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시간을 통해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다시 그려갈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칭찬을 받아 자존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마무리 글, 24회기, B)

달팽이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도 단순한 그림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내가 물어보기도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느끼고 얻으면서 저 자신은 지금까지 제대로 맞게 살고 있었는지 누구에게도 확인받지 않고 그저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치중해온 건 아닌가 후회도 많이 들었습니다. 상담에서 느낀 변화의 가능성이 제 미래를 가꾸어 나갈 자양분이 되도록 열심히 지내겠습니다(프로그램 마무리 글, 24회 기, D).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사범들이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성폭력사범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성찰, 관계 개선,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의식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내면적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낮은 자존감과 인지적 왜곡을 지닌 성폭력사범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는 과정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Oser(2006)는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개선하여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내러티브를 풀어가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 변화를 이루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왜곡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고, 이는 재범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공감능력을 향상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Fernandez 외(1999)는 성폭력사범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며 가해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대체로 공감능력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공감능력 부족은 성범죄를 지속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며(신기숙, 2011),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는 공감능력 향상이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최신현, 김갑숙, 2016)와 일치하며, 성폭력사범 재활 프로그램에 공감능력 개발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참여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성적 동의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책임 의식을 인식하게 되었다. 서호영(2019)은 성폭력사범들이 종종 비정상적이거나 일탈적인 성적 환상과 강박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생활이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Hanson & Morton-Bourgon, 2019).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자신이 과거에 타인과의 경계를 침해했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장미연(2006)은 성폭력사범들이 충동성이 높고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충동성은 재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Ward 외, 1995).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경계를 존중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충동성을 조절할 가능성을 보였다.

넷째,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진실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교정시설 성범죄자 치료의 목표(신기숙, 2016)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게 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사범들이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성찰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경계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립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인문융합치료 기반 교정프로그램이 성폭력사범들에게 내면적 성찰과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여, 이들이 잘못을 돌아보고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임을 보였다. 이는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성폭력사범들의 개별적 경험과 내면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성폭력사범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양적 연구를 병행하여 성폭력사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능력과 자아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각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개별적 상황과 심리적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병행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 시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프로그램이 실제로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 추적 조사를 통해 참여자의 변화와 적응과정을 관찰하고,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은숙/최은영/공마리아, (2008), '가출청소년의 분노감소를 위한 REBT 미술치료 사례연구', 재활과학 제26권 제2호, pp.93-112,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강준기, (2015), '성인 성범죄재소자의 집단미술치료를 계호, 참관한 교도관의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표현예술치료학과 박사학위논문.

고명수, (2010), 창의력 향상과 자아성장을 위한 어린이 글쓰기치료, 서울: 학지사.

권요셉, (2021), '노인 우울증자의 분석감담화 기반 생애회상치료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학위논문.

권인숙, (2015), '초등남학생 엄마의 남아성폭력 관련 불안(두려움)의 젠더적 특성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5권 제1호, pp.223-260.

김근국/유철민, (2016), '성범죄사범 기본교육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인지적 변화에 미친 효과 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4호, pp.183-201, 한국교정학회.

김도경, (2024), 'Meaning of the Self-Healing Experience of Rural Older Adult Women Living Alone Participating in Humanities Convergence Therapy',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영순/김진희/강진숙/정경희/정소민/조진경/조현영/최승은/정지현/오세경/김창아/김민규/김기화/임한나, (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김영순/오영섭, (2020), '내러티브 활용 인문융합치료 교수모형 적용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8권 제1호, pp.107-130,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김영순/오영섭/권요셉/김진선/지성용/오정미/황해영/왕금미/김의연/이정섭/윤수진/정화정, (2022), 호모 내러티쿠스: 인문융합치료의 이해, 서울: 패러다임북스.

김정내/이종연, (2017), '성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의 국내 연구동향, 교정복지연구 제51호, pp.73-99, 한국교정복지학회.

김주희, (2018), '현실불만형 무동기 범죄 수형자의 계슈탈트 음악치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제14권 제2호, pp.195-225,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김진선,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융합치료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진선/김영순,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경험의 의미탐색: 일의 심리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제37권 제1호, pp.137-162, 한국진로교육학회.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학 제13호, pp.123-154, 한국아동복지학회.

범죄예방정책국, (2022), 성폭력범죄 발생비율.

법무부, (2015), 성범죄자 치료 수감명령 전문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법무부.

법무부, (2022),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서호영, (2019),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연구: 범죄성향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상담전공 박사학위논문.

송원영, (2007),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신기숙, (201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0권 제4호, pp.1255-1287,

한국심리학회.

_____, (2016),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방향성 정립을 위한 고찰', 교정담론 제10권 제2호, pp.211-240, 아시아교정포럼.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오영섭, (2019),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일수, (2015), '소시오드라마를 통한 성의식의 변화양상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제18권 제1호, pp.33-57,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회.

윤정숙/이수정, (201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제3호, pp.847-875, 한국심리학회.

윤지인/이홍숙, (2021), '성범죄 재범자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성범죄 3회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교정연구 제31권 제3호, pp.127-161, 한국교정학회.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1호, pp.97-117, 한국심리학회.

장미연, (2006), '만트라명상이 성폭력 가해자의 공격성 및 충동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여경/송남옥/이장한, (2022), '성폭력사범에 대한 글쓰기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비대면 글쓰기의 조절 효과', 교정학회 제32권 제1호, pp.129-154, 한국교정학회.

최신현/김갑숙, (2016), '집단미술치료가 성폭력가해자의 강간통념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미술치료 제23권 제3호, pp.813-837, 한국미술치료학회.

추호정, (2000),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집단 내에서의 성희롱 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서울시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외국문헌

Beekes, R. (2010). Etymological Dictionary of Greek (2 vols). Leiden.

Bruner, J. (2011). ‘교육 이론의 새로운 지평: 마음과 세계를 융합하기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강현석/이자현/유제순/김무정/최윤경/최영수 공역)’, 파주: 교육학사. (원전은 1986년에 출판).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2(24), pp.2-14,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에 출판).

Erikson, E. H., & Erikson, J. M. (2019). ‘인생의 아홉 단계 (송제훈 역)’, 서울: 교양인.

Fernandez, Y. M., Marshall, W. L., Lightbody, S., & O’Sullivan, C. (1999). ‘The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Description and examination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exual Abuse, 11(1), pp.17-32, Plenum Publishing Corporation.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Doubleday.

Groth, A. N., & Birnbaum, H. J. (2013). Men who rape: The psychology of the offender. Springer.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2: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Boston, MA: Beacon Press.

Hanson, R. K. (1998). ‘What do we know about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4(1-2), pp.50.

Hanson, R. K., & Bussiere, M. T. (1996).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pp.348.

Hanson, R. K., & Morton-Bourgon, K. E. (2019).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in Clinical Forensic Psychology and Law (pp.67-76), Routledge.

Lösel, F., & Schmucker, M. (2008). ‘Theories of crime’, Handbuch der Rechtspsychologie, 15.

MacIntyre, A. (1985).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London: Duckworth.

Oser, C. B. (2006). ‘The criminal offending-self-esteem nexus: Which version of the self-esteem theory is supported?’, The Prison Journal, 86(3), pp.344-363, SAGE Periodicals Press.

Rollnick, S., Miller, W. R., & Butler, C. C. (2008).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health care: Helping patients change behavior.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i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pp.61.

Savickas, M. L. (2011). ‘Constructing careers: Actor, agent, and author’,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8, pp. 179-181.

Schmucker, M., & Lösel, F. (2008). ‘Does sexual offender treatment work? A systematic review of outcome evaluations’, Psicothema, 20(1), pp.10-19, Universidad de Oviedo.

Seto, M. C., Marques, J. K., Harris, G. T., Chaffin, M., Lalumière, M. L., Miner, M. H., & Quinsey, V. L. (2008). ‘Good science and progress in sex offender treatment are intertwined: A response to Marshall and Marshall (2007)’, Sexual Abuse, 20(3), pp.247-255.

Ward, T., Hudson, S. M., Marshall, W. L., & Siegert, R. (1995). ‘Attachment style and intimacy deficits in sexual offenders: A theoretical framework’,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4), pp.317, Plenum Publishing Corporation.

■기타자료

경찰청, <http://police.go.kr/>(검색일: 2024. 06. 20.)

경찰청, <https://gsis.kwdi.re.kr/>(검색일: 2024. 12. 15.)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검색일: 2024. 12. 14.)

대검찰청, 성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ED0410N(검색일: 2024. 11. 07.)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검색일: 2024. 12. 14.)

연합뉴스, <http://www.yna.co.kr/>(검색일: 2024. 05. 30.)

연합뉴스, <http://www.yna.co.kr/>(검색일: 2024. 05. 30.)

한겨레, <https://www.hani.co.kr/>(검색일: 2024. 12. 14.)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검색일: 2024. 05. 31.)

「6월 호국보훈의 달」맞이 순직교도관 충혼탑 참배



일시·장소 6. 5.(목) 14:00, 서울남부교정시설
참 석 자 교정정책단장, 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등 60여 명
주요 내용 순직교도관 충혼탑 참배, 헌당, 기념촬영

2025년 상반기 한국교정학회 공동학술대회 참석 및 축사



일시·장소 6. 13.(금) 14:00,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참 석 자 교정정책단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윤옥경,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김옥 등
주 최 한국교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주요 내용 중독 수형자 치료 및 교정처우 관련 발표 및 토론 등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일시·장소 6. 6.(금) 09:55,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
참 석 자 교정·보안정책단장, 교정동우회 임원진, 경인지역 교정기관장 등
주요 내용 영상 시청, 묵념, 추념사, 추념공연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급식관리 철저 지시



추진 목적 6월부터 기온 상승 및 장마로 인한 높은 습도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한 급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식품의 소비(유통)기한 준수
- 생야채 세척 소독 철저
- 칼·도마·고무장갑 용도별 구분 사용
- 배식시간에 맞춰 음식을 조리완료하고 2시간 이내 배식완료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경기공직대상 시상식 참여

서울지방교정청의 최제영 청장은 지난 6월 24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공직대상 시상식에 참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한동훈 교감을 축하했다. 경기일보사가 주관하고 서울지방교정청이 후원·협찬한 이번 행사에서 한 교감은 교정행정대상 부문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구치소는 지난 6월 19일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구치소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원주교 교정협의회 방문 영접

안양교도소는 지난 6월 19일 원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허남근 회장을 포함한 25명의 방문을 받았다. 방문객들은 먼저 양기관의 시설 및 수용환경 등을 비교한 후, 수용자 보관금 지원 및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해 고민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수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참관

수원구치소는 지난 6월 10일 수원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교정시설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혹서기를 앞두고 수용자들에게 전달될 생수 1만 병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국립오페라단 문화나눔콘서트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6월 24일 수용자를 위한 '문화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평소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186명의 수용자가 참석해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 등을 감상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한국교수콰이어 초청 공연 실시

인천구치소는 지난 6월 20일 '한국교수콰이어' 합창단을 초청, 수용자를 위한 교화 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은 세시봉 메들리, 소프라노 독창 '토레타의 아름다운 꿈', '신고산 타령' 등 클래식부터 민요까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순직교도관 추혼탑 참배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남부교정시설에 위치한 추혼탑에서 순직교도관을 추모하는 참배 행사를 가졌다. 이번 참배는 순직한 교도관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교정공무원들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교정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6월 18일 교정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제7대 이상용 회장의 이임과 제7대 박인서 회장의 취임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 교정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써 온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노고를 되새겼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 방문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6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이영환 지원장의 방문을 받았다. 이에 교도소는 기관 운영 현황을 소개했으며, 이후 신축 법조타운 건립 및 과일수용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출소예정자 '만남의 날' 개최

여주교도소는 지난 6월 18일 '수형자 맞춤형 권역별 구인·구직만남

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17개 기관의 출소예정자 125명과 36개 교정동반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57명에 대한 70건의 채용약정이 체결됐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유관기관과 합동 통합방위훈련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6월 4일 군부대·구소방서·구로경찰서와 합동으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특수작전부대가 드론을 이용해 교도소 정문을 폭파하고 화재를 틈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 대응·조치·복구까지 실전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춘천 보라미 FC 풋살장 완공 기념식

춘천교도소는 지난 6월 12일 직원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춘천 보라미 FC' 풋살장의 완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존 오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새로 설치한 이번 풋살장은 부상 위험을 줄이고, 비가 온 후에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배수 성능을 갖췄다.



원주교도소 | 교도 이동환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직원교육 실시

원주교도소는 지난 6월 10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폭력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통일공원에서 현충일 기념 추념식 진행

강릉교도소는 지난 6월 5일 통일공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소장 및 각 과장은 강릉학도 6·25 참전 기념비 참배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안보전시관을 둘러보며 6·25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영월교도소는 최근 수형자의 건전한 정신 함양 및 심성순화를 도모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위해서는 영월교도소 자치위원 수형자 및 6월 가석방 신청자 등이 참여, 영월 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전주대사습청 초청 공연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6월 23일 전주대사습청 관계자 17명을 초청, 수용자 대상 전통문화 공연을 진행했다. 사회자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부채춤,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민요 등 다양한 전통예술 무대를 선보이며 수용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호국 보훈의 달 맞아 추념행사 진행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6월 5일 보훈의 달을 맞아 비전동 덕동산에 위치한 현충탑에서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회동 지소장을 비롯해 직원 7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제40회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소망교도소는 지난 6월 20일 (사)아시아교정포럼과 함께 제40회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영식 소장,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 및 학회장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지난 6월 18일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을 비롯한 교정참여인사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9명의 교정위원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충훈탐 참배

대구교도소는 지난 6월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북 칠곡에 위치한 다부동전적기념관을 방문,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교도소 직원과 재향 교정동우회 대구지부 회원 등 17명이 참석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자발적 성금으로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지난 6월 25일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총 2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인 이번 장학금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이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모범 학생들에게 지원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최승락

통합 자위소방대발대식 개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6월 5일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의 통합 자위소방대 발족식을 열고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공식화했다. 통합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발족선언과 기관장 인사말, 소방차 제막식, 장비 소개 및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창원대 법학과 학생 참관행사 실시

창원교도소는 지난 6월 10일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현장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보 영상 시청 후 수용동과 직업훈련 작업장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NAADAC와 중독재활 협력 논의

부산교도소는 지난 6월 11일, 국제중독재활전문가협회(NAADAC) 대표 등 관계자의 방문을 받았다. 방문단은 먼저 한국형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교정시설에 대해 안내받은 후 중독재활의 효과성 증진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호국보훈의 달 맞아 추념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지난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을 방문,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규성 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 등 8명이 참석해 전시실을 관람하고 전몰학도충혼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순국선열 기리며 충훈탐 참배

진주교도소는 지난 6월 5일 진주시 충훈탐을 찾아 제70회 현충일을 기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소장 및 부서장들은 묵념과 헌화를 진행,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수용자 위한 생수 기부 받아

대구구치소는 지난 6월 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전 수용자에게 지급할 생수 22,400병을 전달받았다. 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위를 견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용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호국보훈의 달 기념 영양 충혼탑 참배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6월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양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순직 교도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번 참배는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수용자 난동 대비 모의훈련 실시

안동교도소는 지난 6월 10일 흉기를 소지한 수용자 난동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보안과장을 포함한 약 50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번 훈련에서는 난동 수용자 제압 및 체포 과정을 실습,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인욱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 참배 진행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6월 4일 제70주년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양군 충혼탑을 찾아 참배를 진행했다. 경북북부 교정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 교도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6월 19일 외부강사를 초빙,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및 갑질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실제 교정 현장의 사례를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자 자세와 갑질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신규 임용 공무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6월 9일 신규 임용 공무원 1명에 대한 임용식을 진행했다. 임용장 수여와 소장의 훈시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모선호 소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는 말로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신규 교정위원 대상 참관행사 진행

울산구치소는 지난 6월 13일 새로 위촉된 교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수용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화프로그램 발굴에 기여하도록 함은 물론, 교정위원들의 역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교도소 | 교위 허준병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경주교도소는 지난 6월 19일 2025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은목 소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정행정에 반영해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허장완 열사 묘소 참배 거행

통영구치소는 지난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통영시 용남면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허장완 열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통영구치소는 평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장소변경접견을 장려하는 등,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호국보훈의 달 맞이 충혼탑 참배

밀양구치소장은 지난 6월 5일 밀양시 아리랑대공원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헌화와 참배를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이병훈 소장과 각과 부서장이 참석,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호국보훈의 달 맞이 충혼탑 참배

상주교도소는 지난 6월 5일 상주 충혼탑을 찾아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에는 송재열 소장 및 각 과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헌화와 묵념을 통해 순국선열, 호국영령, 순직 교도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 화재 대비 자체 소방 훈련 실시

거창구치소는 지난 6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취사장, 위탁작업장, 대운동장 등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의 목적은 화재 진압반 및 현장반의 '신속한 출동, 수용자 및 내부 '인원 대피 유도', '소방차의 화재 현장 유도' 등 유사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보훈의 달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6월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참배했다. 오세홍 청장과 직원 15명은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묵념과 헌화를 통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진전 개최

대전교도소는 지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6·25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청주교도소는 지난 6월 18일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지방교정청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김용국 소장은 "이번 행사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음주문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천안교도소는 지난 6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문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음주문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 소장은 "음주문전은 범죄행위다"면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노후 현판 교체 및 현판식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6월 12일 노후된 목재 현판을 새로운 현판으로 교체하며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다. 새 현판의 글자체는 직원 공모전과 투표를 통해 선정됐으며, 이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수용자 가족사랑캠프 개최

공주교도소는 최근 수용자와 가족 간 유대 회복을 위한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 정서적 연결의 회복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마련됐다. 캠프에서는 소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제천 충훈탑 참배

충주구치소는 지난 6월 4일 제천 솔밭공원 내 충훈탑을 찾아 참배를 진행했다. 김승 소장을 비롯한 직원 15명이 헌화와 묵념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린 이날 행사는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호국보훈의 달 맞아 총령탑 참배

홍성교도소는 지난 6월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홍성읍에 위치한 총령탑을 참배했다. 이날 행사는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의 희생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제한국 소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구자호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6월 10일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 및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정홍보영상 시청과 함께 생활관, 식당, 소통관, 직영 작업장 등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월남 참전 유공자에 위문품 전달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6월 12일 보훈의 달을 기념해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보훈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현충탑 참배로 호국영령 추모

광주교도소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앞둔 지난 6월 5일 광주광역시 현충탑을 방문, 참배로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삼재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해 현충탑과 위패봉안소에 헌화 및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6월 19일 2025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라미 봉사단 및 사회적 처우 활동 개선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장문 소장은 이날 "교정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전용배

모범수형자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전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6월 16일 모범수형자 4명과 함께 인근 뇌병변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환경정비와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모범수형자들에게 사회 적응 능력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전주교도소는 지난 6월 18일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라남·북도 8개 교정시설의 출소예정자 90여 명, 지역 구인업체 20곳,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유관기관 4곳이 참여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상호존중의 날’ 맞아 증명사진 촬영

순천교도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상호존중의 날’(매월 11일) 기념 증명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방상용 교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법무섬 시스템 내 사진을 최신화함으로써 직원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시찰

목포교도소는 지난 6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의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시찰은 유관 법무행정기관 간 이해 증진과 형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교정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실질적인 업무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군산교도소 | 교위 김세진

현충일 자제 추념식 개최

군산교도소는 지난 6월 4일 ‘제70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을 가졌다. 현충탑에서 진행된 이날 추념 행사에는 군산교도소장을 비롯한 직원 10여 명이 참석, 나라와 겨레를 위해 전사·순직한 호국위민(護國爲民)의 영령들을 추모했다.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제주교도소는 지난 6월 12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릴레이를 이어받아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 6월 1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강사가 영상 자료를 활용해 쉽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현산초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진행

해남교도소는 지난 6월 10일 해남 현산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교도관 직업 체험 및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교도소 부서별 업무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교도관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국립 임실 호국원 찾아 순국선열 추모

정읍교도소는 지난 6월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 임실 호국원에서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번 참배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되새기는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 공무원



서울남부교도소 | 교감 허정우

허정우 교감은 1995년 9급 교도로 임용된 이후 30여 년간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 교화에 헌신해 왔다. 청송교도소,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의료팀장으로 혈액 투석환자 진료협약 체결, 항정신성의약품 관리체계 강화 등 의료 교정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평소 뚜렷한 소신과 동료애, 수용자에 대한 관심이 돋보인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도 이은호

이은호 교도는 최근 한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목격, 이를 제지함으로써 교정사고를 막았다. 이 교도는 지난 5월 20일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로 영상계호를 실시하던 중 독거수용 중인 수용자가 수용복 하의를 이용해 화장실 배관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TRS를 통해 상황을 즉시 전파하는 등 교정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감 이동현

이동현 교감은 지난 6월 1일, 야간 수용팀은 2수용동 하층 1실에서 비상벨이 울린 것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200번 황○○ 수용자가 호흡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의식을 확인한 결과 심정지 상태였으나,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의 호흡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주교도소 | 교감 이나영

이나영 교감은 평소 복지와 차량 및 서무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공무원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 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복지와 전반의 행정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등 원활한 부서 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부서장과 동료들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따뜻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에는
직접 만든 빵과 음료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

힌트



제과·바리스타 공과 훈련생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깨운다.

크 툷 툷 교 리 ㄱ 리

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7월 1일 시행!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 시설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



소득공제 적용 가능 상품



① 100% 적용 가능 ▶ 시설 이용료

- 수영장·헬스장 일단위, 월단위 이용료
-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② 50% 적용 가능 ▶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교육 비용

- 단체/개인 교습 비용 및 강사 운영 프로그램 참가 비용
- * 시설 이용료와 구분 불가한 크로스핏, 강습수영 등에 적용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culture.go.kr/deduction/>으로 접속

고객센터 1688-0700 문의

